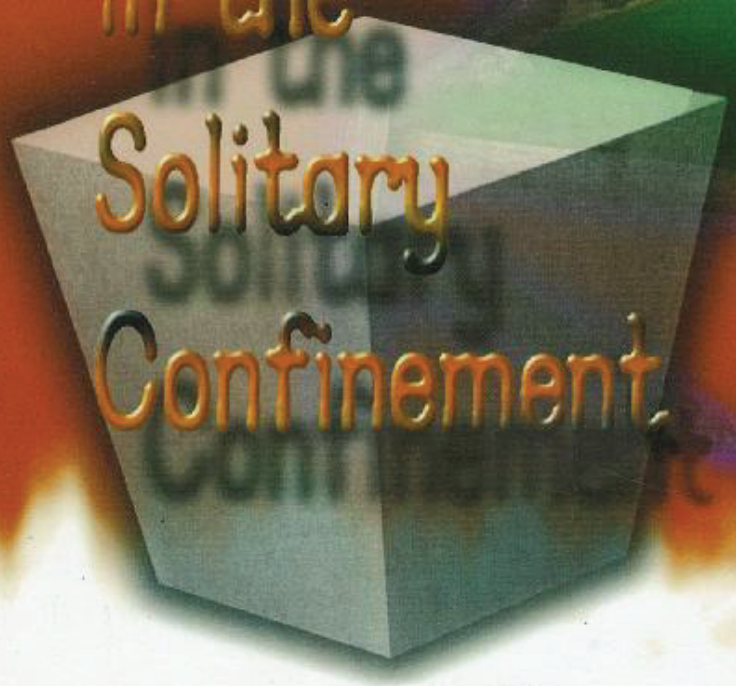
현 대 인 을 향 한 범 브 란 트 목 사 의 메 시 지

독방에서의 설교

리차드 범브란트 지음 · 전덕애 옮김

Sermons in the Solitary Confine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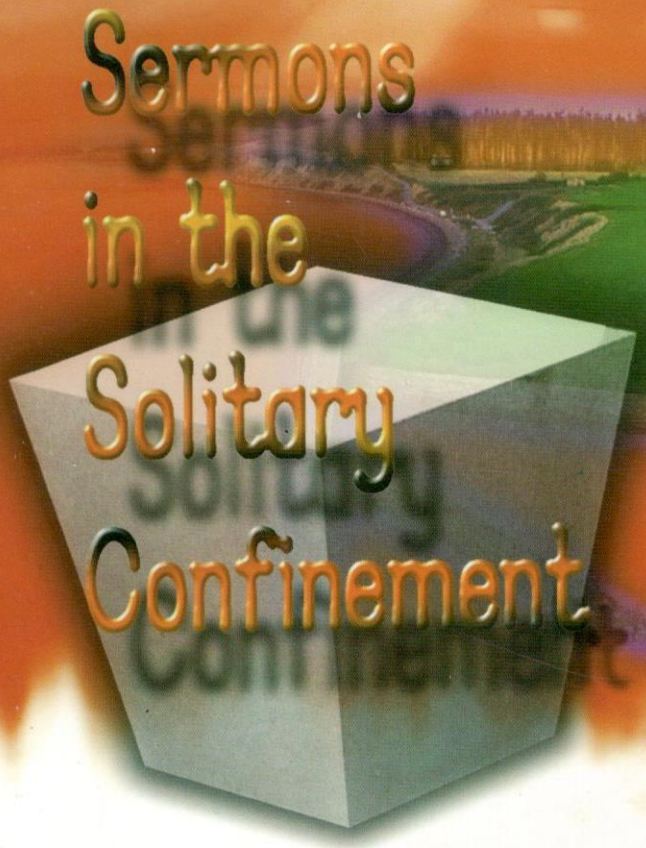


종로서적

현 대 인 을 향 한 범 브 란 트 목 사 의 메 시 지

독방에서의 설교

리차드 범브란트 지음 · 전덕애 옮김



종로서적

독방에서의 설교

차례

옮긴이의 말/1
서문/5
불공평한 하나님의 법/15
주님의 모친/29
의무는 결코 끝나지 않는다/38
옥에 갇힌 삼손/50
내 자신의 영혼에게/60
육신을 입으신 말씀/68
어린이들의 주일학교/75
다시 재갈에 물려/85
눈에 보이는 상처/92
빈체아/100

서문

공산 치하의 루마니아에서 치른 십사 년 동안의 감옥 생활 중에서 나는 해도, 달도, 별들도, 꽃들도, 눈(雪)도 볼 수 없으며, 나를 때리고 고문하는 간수들이나 고문관들 이외에는 사람 하나 볼 수 없는 지하 10m에 있는 독신 감방에 갇혀 있었다.

그 감방에서는 소리라곤 거의 들을 수가 없었다. 간수들조차 바닥이 펠트(毛氈)로 된 구두를 신고 있어서 그들의 발자국 소리도 들을 수 없었다.

내게는 성경 뿐 아니라 책이라곤 단 한 권도 없었으며, 내 생각을 적어 놓을 수 있는 종이 한 장도 없었다. 우리에게 쓰라고 요구해 오는 것이라곤 우리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폭로하는 고발장 뿐이었다.

그 삼년 동안 나는 밤에 거의 잠을 자지 않았다. 나는 낮에 자고, 밤이면 영적 운동과 기도로 시간을 보냈다. 매일 밤 나는 설교를 짓고, 그 설교들을 – 언젠가는 석방될지

도 모른다는 가냘픈 희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외워 놓으려고 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는 주요한 아이디어들을 짤막짤막한 운율시로 표현하는 방법을 이용했다. 그러한 전례들이 많이 있었다. 오말 카이얌(Omar Kayyam), 노스트라다무스(Nostradamus), 하인리히(Heinrich Seuse), 안젤러스 실레시우스(Angelus Silesius) 등이 주옥 같은 철학과 종교와 예언을 지극히 짧은 시로 압축하여 표현해 놓은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나도 그런 식으로 시를 지은 다음 이들을 완전히 외우고 계속적인 반복을 통하여 기억 속에 간직해 놓았다. 심한 약물의 영향으로 기억력이 흐려질 때면 이들을 잊은 것 같았지만, 약물의 효력이 지나가면 그것들은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그 설교들 중 몇 개가 이 책에 수록되어 있다. 나의 뛰어난 기억력이 약 삼백오십 개 정도의 설교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이 설교들에 대한 평가가 교리적 입장에서 내려져서는 안 된다. 나는 그 당시 교리에 의해 살지 않았다. 누구도 교리를 믿고 살 수는 없는 법이다.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에 관한 가르침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먹고 산다.

교리적인 견지에서 볼 때, 하나님과 논쟁을 벌인 다윗과 욥은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었다. 교리적인 견지에서 볼 때, 에스더의 저자가 자기 백성을 위해 그렇게 큰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 하나님께 단 한 마디의 찬양도 돌리지 않은 것도 큰 잘못이었다. 교리적인 입장에서 볼 때,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예수가 과연 메시아이신가에

대해 의문을 가졌던 것도 잘못이었다. 교리주의자들은 바로 예수님 자신에게도 잘못을 찾으려면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분이 겟세마네에서 두려움으로 떨었던 것은 잘못이었다고. 그러나 삶은, 심지어 종교적인 삶도 교리와 관계 있는 것이 아니다. 삶은 교리를 떠나 삶 자체의 길을 좇는데, 그 길은 이성에 비추어 볼 때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다.

나는 예외적인 환경에서 살았고, 그 때문에 예외적인 영혼의 상태를 경험했다. 나는 이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가져야만 한다. 이것들을 세상에 알려야만 한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공산주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감옥에 갇혀 나처럼 고문을 당하고, 약물 중독을 당하고, 독방에 갇히고, 고문복에 갇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런 환경에 처했을 때 내가 보였던 반응과 비슷한 반응을 보이고 있음이 틀림없다. 많은 무리를 보시고 동정을 느끼셨던 예수님은 압박받는 민족 가운데 가난한 시골 목수가 되어 그 무리 중의 한 사람이 되셨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고통받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모르고서는 동정(Compassion:이 말은 같이 고통받는다는 뜻이다)을 느낄 수 없다.

공산주의나 나치스 치하에서 독방에 갇힌다는 것은 고통의 절정에 이르는 것이다. 그러한 시련을 겪는 크리스찬들의 반응은 다른 모든 것들과 성질을 달리하는 특이한 것이다.

이 책의 목적은 이 생각들과 느낌들을 무죄한 희생자들의 편에 서는 사람들에게 알리자는 것이다. 나는 지금 완전히 다른 상황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실린 설교

들 가운데 표현된 생각들 중 많은 생각들과 지금은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그때 내게 일어났던 생각들을 그대로 적고 있다.

이 글을 읽는 독자여, 내 생각에 대한 판단을 내리려하지 말라. 베데(Bede)의 말을 빌리자면 "우는 소리 외에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고, 고문관들의 얼굴 외에는 어느 누구의 얼굴도 볼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감옥 속의 크리스찬 형제들과의 영적인 친교 속으로 몰입하라. 당신 자신을 그들의 처지에 놓아 보라.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라"(히브리서 13:3). 당신의 상상력을 발휘하여 독방에 갇혀 고문받는 것이 어떤 것일지 상상해 보라. 그때에야 비로소 당신은 이 책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에는 극도의 긴장 때문에 이성의 기둥이 흔들린 한 목사의 설교가 들어 있음을 지금의 나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 나는 거의 배교(背敎)의 지경에까지 이르렀던 적도 있었는데, 다행히도 그 최악의 시기에 고문을 당하지 않았었다. 만약 그때 고문을 당했더라면, 나도 아마 무너져 버리고 말았을 것이다. 내가 절망을 극복하고 난 후에야 고문이 다시 시작되었다.

내 몸은 비록 독신 감방을 떠났지만, 독신 감방은 나를 떠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짧은 시(詩)에서 완전한 설교를 재구성하는 일은 내게 쉬운 일이었다. 나는 미국에 있는 큰 종교 집회에 가 있거나, 영국에 있는 교회나 위원회에 참석하고 있거나, 기차에 앉아 있거나 간에 내가 독신 감방에 살지 않은 날은 하루도 없었다. 내 속의 참 나는 영원히

독신 감방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현재의 내 삶을 살고 있다기 보다는 지난 날의 감옥에서의 삶을 되살고 있다. 그 이유는 지난 날의 감옥 생활이 내 개인의 역사에서 떼어 낼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이 아니라 현재의 내가 참 내가 아니기 때문이다. 중공이나 알바니아나 루마니아나 북한이나 다른 공산주의 국가들의 외롭고 쓸쓸하고 눅눅한 감방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참 나이다. 그들은 예수님의 형제들이다. 그들이 이 지상에 있는 신비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에서 가장 귀중한 부분이다. 내가 독신 감방 시절을 되살 때 나는 그들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이상한 경험이며, 나를 미치게 할지도 모른다. 하긴 이미 설교들 속에서 미친 점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어리석음을 찬양함」(In Praise of Folly)을 쓴 에라스무스가 옳았다면, 어리석음 그 자체에게 말할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법도 없지 않겠는가? 공산주의 치하에서 많은 목사들과 크리스찬들이 오랫동안 지속된 고문 때문에 미쳐 버린 예가 많이 있다. 그렇게 미친 사람들에게 미친 소리를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도 어떻겠는가? 내가 여기에 적어 놓은 것들이 바로 이렇게 필설로 설명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의 미친 생각들이다.

내게는 감옥에서 믿음의 승리를 경험한 순간순간들이 있었으며, 절망의 순간들도 있었다. 나는 이 두 가지 다른 경험들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한다. 후자의 경험은 나에게 내 자신의 한정성(限定性)을 보여 주고 내 자신의 승리나 믿음에 의지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에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새로운 원인들이 항상 새로운 영향을 낳는다. 공산 치하에서의 독신 감방은 교회 역사상 새로운 경험으로서, 그것은 로마 시대의 기독교인 핍박이나 심지어는 나치스의 핍박과도 견줄 수 없는 것이다. 극심한 약물 중독이나 과학적인 세뇌 공작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생각이나 반응에 놀라지 않게 될 것이다.

여기에 실린 설교 가운데 내포된 어떤 생각들은 굉장히 대담한 것이라는 것을 나도 느끼는 바이지만, 이런 대담성은 오로지 긴 침묵의 기간 후에만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이들이 진리를 말하는가, 아니면 이단설을 말하는가? 진리란 생각과 실제의 합일(合一)이다. 그러나 어느 누가 완전한 실제를 안다고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전혀 다른 실제 속에서 살았고 우리의 생각이 그것을 정확하게 반영한 것이지만, 조용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보일는지 모른다. 여하간에 그때의 내 생각은 그러했던 것이다. 오늘날 공산 치하의 감옥에서 고문당하고 있는 수천 명의 크리스찬들의 생각은 이러한 폭풍우 같은 생각으로 갈기갈기 찢겨지고 있다. 이기적인 자신만의 삶을 영위하지 않고 육체적인 고문 뿐만 아니라 극심한 정신적 고통까지도 겪고 있는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고자 하는 크리스찬들을 위해 내가 기록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제 시편 저자의 말을 빌어 나도 여러분에게 말하겠다. "들어보라 오 딸이여! 생각해 보라 그리고 그대의 귀를 기울여라. 그대의 친지들과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려라-그대가 구교도이든 신교도이든, 보수주의자이든, 진보주의자이든." 그리고 우리 죄수들이 당했던 것처럼 눈을 가리운 채 나와

같이 지하의 감방으로 내려가자. 감방문이 당신을 감방 안에 둔 채 닫쳐지는 소리를 들어보라. 당신은 혼자이다. 모든 소음은 사라졌다. 당신이 숨쉬는 공기도 파이프를 통해서 들어올 뿐이다. 그런 곳에 갇혔다는 생각에 고함치고 싶은 충동을 느끼거든 고함쳐 보라. 간수들이 와서 당신에게 고문복을 입힐 것이다. 그러나 그분께서 당신을 위해 정해 놓으신 만큼 당신이 여기에 머물고 있으면 "왕께서 당신의 아름다움을 크게 탐하실 것이다"(시편 45:11).

당신이 갖게 되는 절망적인 생각과 신앙적인 생각, 당신에게 찾아드는 의심과 그 의심의 해결, 당신이 맛보게 되는 미칠 것 같은 순간과 그 순간의 지나감 등을 받아들여라. 이 모든 것들이 당신에게 일어나도록 허락하라.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고 있었다고(You are thinking) 상상하겠지만 실은 당신이 생각되어지고 있는 것이다(You are being thought). 당신이 천사들을 위한 실험 대상일지도 모르겠다. 당신이 욥처럼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건 내기의 대상물일 수도 있다. 오직 하나님께만 달라붙겠다는 결심을 가져라. 비록 그분이 당신을 죽이거나, 당신의 믿음을 죽인다 하더라도 당신이 당신의 믿음을 잃게 되거든, 믿음이 없는 채로 하나님의 것으로 남아 있어라. 당신에게서 모든 성령의 열매가 사라지고, 잎만 달린 나무로 남아 있거든, 잎들도 목적을 가졌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 잎들의 그늘 아래 열매를 맺은 이들이 하늘의 연인의 품속에 안긴 채 휴식을 취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신부(新婦)가 사랑하는 이를 위한 화관을 만드는 데 잎들이 사용되기도 하고 병을 낫게 하는 약으로 쓰일 수도 있으며, 심지어 누렇게 변해 시든 채 땅

위에 떨어지면 당신과는 달리 끝까지 신앙을 지킨 이들을 향해 걸어오는 신랑의 발 밑에 깔리는 아름다운 융단이 될 수도 있다.

외로운 독신 감방으로 내려가라. 나는 당신을 당신의 감방문에까지 데리고 왔다. 이제 나는 여기서 사라지고 당신만이 그분과 함께 남는다. 감방이 당신의 신방일 수도 있고, 당신의 영혼의 고문실이 될 수도 있다. 나는 당신을 떠나야 한다. 내가 있을 곳은 나의 감방이다. 당신은 나를 바라보고 내 얼굴에서 광기(狂氣)를 본다고 생각하는가? 나는 상관치 않는다. 머지 않아 당신의 모습도 내 모습과 같아질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예수님께 말씀드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나는 검지만, 아름다워요"(아가 1:5).

우리는 깊은 어둠 속으로 내려왔다. 여기에서 당신은 이런 깊은 곳이 주는 압력도 느끼겠지만 황홀감도 느끼게 될 것이다. 깊은 곳에 이르면 사물은 표면에서와는 다른 색채를 띄게 되고, 당신의 방향 감각은 사라진다. 당신은 자신의 정신을 지킬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당신 정신이 바뀐다. 당신은 아마 제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살펴 주시기를! 최후의 심연의 황홀경을 지나가는 모든 불쌍한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함께 하시기를!

R.W

주:이 책을 읽어 가노라면 죄수들이 감방의 벽을 통해 암호로 이야기를 나누는 이야기가 여러번 나올 것이다. 「하나님의 지하운동」이라는 내 책에서 나는 어떻게 하여 거의 모든 죄수들이 이 암호를 배우게 되었나를 설명하고 있다. 내가 말하는 나치스 감옥은 나치스당이 우리 나라에 세운 안토네스큐 장군의 독재 정치하에서의 루마니아 감옥이다.

현대인을 향한 범브란트 목사의 메시지

독방에서의 설교

리차드 범브란트 지음 · **전덕애** 옮김

종로서적

불공평한 하나님의 법

하나님!

저는 여러 해 동안 사람들에게 설교를 해오고 있습니다만 교회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청중들이 있다는 사실, 즉 제가 당신의 말씀을 설명할 때 천사들이 듣고 있다는 사실을 거의 잊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감방 속에는 당신과 나와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당신의 종들만 있으니 이제 새로운 일련의 설교를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에는 제 말을 듣는 사람들의 감정을 상치 않고 그들의 편견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 조심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에게라면 저는 백 퍼센트 솔직할 수 있겠습니다. 당신은 종교 재판 같은 것은 하지 않는 분이시니, 제 말이 이단설이라고 저를 재판에 회부하지는 않으시겠지요. 사람들 앞에서는 당신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지만, 여기에서는 다윗이나 욥이나 다른 사람들이 했던 것처

럼 저도 당신에게 질문을 던지고 당신을 비난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제 마음 속에 있는 것은 무엇이나 다 털어 놓고 당신께 따져 보겠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다"(창세기 2:18)라고. 그런데도 당신은 저를 이렇게 독방에 가두어 놓고 있습니다. 이브를 창조하셔서 아담과 같이 있게 하신 당신께서 제게서는 제 아내를 빼앗아 가셨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이 옳지 못하다고 인정하셨던 일을 바로 제게 행하고 계십니다. 당신과 제가 만나는 날, 당신은 이 일을 어떻게 변명하시렵니까? 당신은 제게 당신의 말씀으로 옳지 못하다고 밝혀 놓으신 일을 왜 했느냐고 물으시겠지요.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보다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을 이루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나쁘지요. 나쁘기는 피차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제야 이사야의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야훼께서 말씀하신다. '오라, 와서 나와 시비를 가리자'"(이사야 1:18).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햇빛을 주신다"(마태복음 6:45). 우리를 고문하는 자들은 지금 바닷가에서 햇빛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하 ~~100~~10m에 있는 이 감방에 갇혀 몇 달 동안 해를 못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심판날에 제게 여러 가지를 물으시겠지요. 그게 그분의 권리니까요. 그러나 저는 그분에게 왜 하나님께서 제게는 햇빛을 허락하지 않으셨느냐고 묻겠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무엇이라고 대답하실까 무척 궁금하군요.

저는 예수를 믿게 된 이래 에스겔서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당신의 말씀을 늘 이상하게 여겨왔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좋지 못한 규정도 정해 주었다. 그대로 하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법도 세워 주었다"(에스겔 20:25). 저는 이때까지 어떤 설교자도 이 구절을 설명하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는데, 이제 이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조금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법은 각기 다른 상황에 처해 있는, 각기 다른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똑같은 수준을 요구하기 때문에, 어떤 법도 옳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십계명의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너는 네 앞에 새긴 우상을 두지 말라"는 계명은 엄격한 청교도적 분위기 가운데에서 자란 사람에게나, 오랜 가톨릭 전통 속에서 자란 사람에게나 똑같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기 다른 환경에서 자란 두 사람이 똑같이 쉽게 이 계명을 지킬 수는 없기 때문에 이 계명은 공평하지 못합니다. 저는 언젠가 이 두 번째 계명에 대해 어떤 가톨릭 신자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는 솔직하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당신네 신교도들은 왜 그렇게 눈이 어둡습니까? 제 이 계명은 '너는 너를 위하여 어떤 새긴 우상도 만들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미켈란젤로나 다른 조각가들도 당신을 위하여 어떤 형상을 만들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개인들이 자기네 생각 나름으로 성상을 만드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만 크리스찬들에게 영감을 불러 일으켜줄 이러한 성상들을 교회가 만들어 주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는 내게는 큰 걱정거리인 이 성상 문제에 관해 아무런 거리낌조차 느끼지 않는 이 천주교 형제를 놀란 눈으로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인간의 모든 자질을 갖추고 오셨는데, 그 자질 가운데에는 예술 작품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자질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등등. 나는 이 문제에 대해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계명도 그렇습니다. 성스럽고 선한 사람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계명에 대해 강한 반발을 보이는 사람들을 알고 있는데, 그들이 기억하는 것이라곤 아버지는 주정뱅이였고 자기들을 늘 때리곤 했으며, 어머니는 자기들을 내버리고 도망갔다는 사실 뿐이었습니다. 제 교회에는 자기 아버지에게 강간을 당한 소녀도 있었습니다. 당신의 계명은 공평치 못합니다. 당신의 계명은 모든 아버지와 모든 어머니를, 심지어 우리에게 범죄적 유전성을 물려준 부모까지도 공경해야 한다고 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 내에서 제 위의 상사들을 공경해야 합니다. 그분들 중에는 순교를 택한 사람도 있지만, 공산주의자들의 허수아비가 되어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이들을 모두 존경해야 합니다. 그것이 당신의 법이기는 하지만 불공정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수세기 동안 전쟁을 모르고 살고 있는 스웨덴 사람들이나 스위스 사람들에게도

해당되지만, 우리 같은 루마니아인들에게도 해당되는데, 우리 나라는 수시로 외국의 침략을 받아왔고,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수백만 장자라서 평생 먹고 쓰며 살아도 다 쓰지 못할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으니, 도둑질할 이유가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너무 배가 고파서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만 있다면 빵을 훔쳐 먹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저는 당신의 공평치 못한 법을 어기는 셈이 될 것입니다.

"너는 간음하지 말라"는 법도 그렇지요. 어떤 사람은 사랑스럽고 아름다우면서 남편에게 훌륭한 성적 만족을 주는 아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같이 살 수 없는 아내나 남편을 가졌거나, 혹은 전혀 배우자가 없는 사람에게도 이 법은 해당됩니다. 우리 교인 중의 하나인 죤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의 아내는 여러 해 동안 병을 앓고 있어서, 그에게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불공평한 법 투성이입니다.

"너희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도 전혀 거짓말할 이유가 없거나, 상상력이 모자라서 거짓말을 하려 해도 할 수 없는 사람에게도 해당되지만, 공산당원인 고문관에게 심문을 받아야 하는 저 같은 사람에게도 해당됩니다. 그가 크리스찬으로서의 나의 의문에 호소하면서 내게 사실을 다 털어놓으라고 요구하는데, 내가 그의 말대로 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처럼 붙잡혀 올 것입니다.

라합은 두 사람의 이스라엘 스파이를 숨겨 주고 나서, 그

스파이들이 어디서 왔었는지, 어디를 향해 떠났는지 모른다는 대답으로 거짓말을 했는데, 그녀가 잘못한 것이었습니까?

저는 스펄젼이 이 문제에 대해 설교하면서, 자신을 라합의 입장에 놓아보려고 종종 시도했었다는 말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가 핍박받는 신교도들을 몇 명 숨겨 놓고, 혹 그들이 그의 집에 숨어 있지 않느냐는 질문을 당국자들에게서 받는다면, 자기는 무엇이라고 대답할 것인가를 상상해 보았답니다. 그는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엄격했었다고 알려져 있고, 우리는 나치스 시대에 거짓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이 써 놓은 글을 관심 있게 읽어 보았습니다. "나는 대답할 말을 상상해 보려고 애썼지만, 아직까지도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하였다. 나는 라합보다는 더 많이 알고 있고, 이런 경우에 대해 생각해 볼 시간적인 여유도 더 많이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내가 택해야 할 길을 알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아주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생각해 냈다는 이런 저런 대답의 회피보다는 라합의 거짓말이 더 정직하고 솔직한 것이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한다."

우리를 고문하는 당국자들에게 거짓말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놓고 걱정을 하는 형제들에게 저는 스펄젼의 말을 여러 번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스펄젼은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지만, 저는 결정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저는 저를 심문하는 공산당 고문관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으며, 기쁜 마음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요한복음 14:1)는 말씀도 선천적 걱정꾼이나, 어떤 일에 대해서도 걱정하는 법이 없

는 선천적 낙천가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 말씀은 진짜 고생이라곤 겪어본 적이 없는 미국의 부자나, 이제 금방 감방 벽을 통해 몰스 부호로 사형 선고를 받은 사실을 알려온 나의 감옥 친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법이란 불공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조차도 일단 법을 만들기 시작하자 불공정을 피할 수 없으셨습니다.

당신의 불공정은 나를 이렇게 햇볕이 들지 않는 곳에 혼자 있도록 가두어 두고 있다는 사실만이 아닙니다. 문제는 보다 더 심각합니다. 당신은 애당초 인간에게 법이라는 굴레를 씌움으로써 불공평한 일을 저지르셨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문제는 당신에게 맡겨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불안스럽게 하는 걱정거리를 벗어나는 길 중의 하나는 한 방울의 물에 불과한 우리의 개인적인 슬픔을 온 인류의 무한한 슬픔의 바다에 묻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께 일반적인 문제를 제시하겠습니다. 왜 당신은 당신 자신이 불공정하다고 인정하시는 계명들을 우리에게 부과하심으로써 온 인류에게 불공정을 범하셨습니까?

저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듯, 당신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중재자이며, 조정자이십니다. 그분은 저를 위해 당신에게 탄원하듯, 저에게도 당신을 이해하고 사랑하라고 당신을 위해 매일 밤 중재하고 계십니다.

저를 위해 그분이 육신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시는 일이 필요했듯이, 당신을 위해서도 그 일이 필요했습니다. 비록 당신과 제게 그것이 필요한 이유가 전혀 다른 것이긴 했습니다만, 당신은 항상 높으신 신의 자리에서 내려다 본 인간

만을 알고 계셨는데, 그렇게 해서는 인간을 완전히 알 수 없었을 겁니다. 제 옆 감방에는 전직 판사가 한 사람 갇혀 있는데, 그는 벽을 통해 자기가 이전에 내렸던 모든 판결을 다 후회한다고 내게 전해왔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몇 해씩 보내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판결을 내렸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당신은 인간처럼 살거나, 고통을 당해보거나, 유혹을 받아보지도 않고서 인간을 심판하셨었으니, 당신에게도 인간으로서의 경험이 필요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아드님이 인간이 되는 경험을 통해 얻으신 것이 많을 겁니다.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시온의 아가씨들아
나와서 뵈어라
이 즐거운 혼인날
솔로몬왕은
그 어머니가 씌워 주신 면류관을
쓰고 계시는구나 (아가서 3:11).

영원전(前)서부터 예수님은 온갖 종류의 아름다운 면류관을 받으셨지만, 그 중 가장 아름다운 면류관은 그분의 어머님에게서 받은 신즉인간(神卽人間)의 면류관이었습니다. 그분은 가난했고, 희롱을 당했으며, 얻어맞기도 했고, 유혹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죽으셨습니다. 이런 경험으로 풍요해진 그분이 다시 당신께로 돌아가셨으니, 이제 당신은 우리를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을 겁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 있다는 말은 발전

하고 자라고 성장한다는 뜻입니다. 항상 같은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은 살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항상 우리에게 "주를 찬미하라"(Magnify the Lord)고 가르치는데, 그 말은 당신이 'magnified' 될 수 있다는 말, 즉 '더 커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더 위대하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삶을 실제로 살아보심으로써 인생의 신비를 하늘나라에 다 알려 버리셨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지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자신도 옳지 못하다고 인정하신 법을 주신 하나님의 신비를 매일 밤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당신께 말씀을 드리다가 잠시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수사학적인 중단이 아니었습니다. 당신과 이야기하는데 그런 인위적인 기교는 필요치 않습니다.

성도들의 기도의 향기가 당신 앞으로 올라올 때 하늘 나라에서도 천사들의 노래가 잠시 중단되고 침묵의 순간이 흐르듯(요한계시록 5:8), 저도 무엇인가를 듣고 있었기 때문에 잠시 말을 중단했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께서 제게 설명하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분의 양은 얼마나 똑똑히 그분의 음성을 알아듣는지요!"

그분은 당신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신 것은 우리가 거기에서 머물지 말고, 그것을 넘어가서 정말로 당신께서 의도하셨던 것에 도달케 하려는 데 있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은 분명히 알겠습니다. 당신의 계명과 당

신의 소원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는 것 말입니다.

예를 들면 당신은 "복수는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당신의 분노를 나타내기 위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실은 우리의 신앙이 아주 커서 당신이 보복하려 하실 때 우리가 당신의 손을 막으리라고 믿고 계십니다. 예, 우리는 당신이 막지 말라고 명하시더라도 당신을 막을 것입니다. 좋은 양치기 개는 낯선 사람이 다가올 때 목자가 짖지 말라고 명해도 쉽게 짖기를 중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옛날에 나의 어린 아들이 잘못한 일이 있어 그를 심하게 꾸짖은 적이 있는데, 그가 내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않아, 나는 그에게 왜 그러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저는 제게 심한 말을 하는 아버지의 입을 보지 않고, 그 말들이 흘러나오는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을 보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희도 당신의 계명에 담긴 엄한 말씀을 보지 말고, 저희를 사랑하시기에 그런 계명을 주신 당신의 의도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동물의 제사에 관한 당신의 규례를 다 알고 있었지만, 그는 "당신은 제물이나 번제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시편 51:16)라고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집트인들에게서 신이란 항상 우리에게서 무엇을 받기를 기대하는 존재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물려받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다른 민족들처럼 사람을 제물로 가져올까봐 그것을 경계하시면서, 양이나 비둘기 정도로 하라고 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이를 제물로 바친 분이 당신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야 비로소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신은 당신 눈에 보기 좋으

라고 우리가 다른 생물의 생명을 죽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당신의 가장 옳지 못한 규례 중의 하나가 살인자를 위한 도피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민수기 35:6).

어떤 사람이 고의가 아니게 살인을 했는데, 죽은 사람의 친지가 복수를 하려 하거든, 당신은 살인자에게 그 도피성으로 도망가라고 명하셨습니다. 몇 사람이 그러한 살인을 범했는데,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 만큼 달릴 수 없다고 가정해 봅시다. 모든 사람이 다 같은 속도로 산 위에 있는 성으로 달려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요. 잘 달리는 사람은 도피성에 먼저 다다라 안전할 수가 있지만 느린 사람은 복수자에게 잡혀서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그래, 의라는 것이 사람이 자기 다리를 얼마나 빨리 움직일 수 있느냐 하는 속도에 달려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승리하는 자는 상을 받으리라는 말씀을 보면 신약에 와서 이 불공정함이 영원한 규례로 굳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룩해지기를 갈망하면서도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에 지고 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랑은 항상 경주에서 지고 마는 법이므로 율법대로 한다면 사랑은 항상 상을 잃을 것입니다. 오직 악(惡)만이 기록을 세울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느립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이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유태인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인 세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누가 제일 먼저 갈 수 있는지 내기를 걸었던가요?

세 사람 모두 같은 시각에 출발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인은 상을 타고 유명해질 욕심으로 서둘러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 다쳐서 고통을 이기지 못해 신음하는 소리와 도와달라고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좋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향해 연민의 정을 느꼈고, 달려가면서 그 다친 사람을 위해 기도를 올리긴 했지만, 경주가 끝나는 여리고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상과 명예 때문에 걸음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길은 위험했습니다. 사방에 강도들이 우굴거린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그들과는 상당히 다른 종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왜 그 경주에 참가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오직 모든 살아 있는 것에 대한 사랑이었거든요. 그는 신음소리를 들었을 때, 말에서 내려 그 상한 사람에게 기름을 발라주고 그가 이미 지나온 곳에 있는 여관으로 그 사람을 데려갔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지게 마련이듯, 그는 경주에서 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사랑에 병들었습니다"(아가서 5:8)라고 신부는 말합니다. 병든 사람은 경주에 이길 수도 없고 승리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나라는 힘으로 빼앗는 자의 것"(마태복음 11:12)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랑은 달려들어 빼앗을 만한 힘이 없습니다. 큰 죄인이 하늘 문을 힘으로 억지로 여는 것은 쉽습니다. 성자들과 남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기들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은혜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이 모든 사람에게서 똑같은 빠르기와 승리를 요구하는 것은 공평치 못합니다.

저는 이제 왜 제가 이 감옥에서 더디오는 저의 신랑을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려고 계시던 곳을 분명히 떠나신 것을 알고 있지만, 그분은 오시는 길에 다쳐서 누워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걸음을 멈추셔야 하는 모양입니다. 야이로가 죽어 가는 자기 딸을 위해 예수님께 빨리 오시라고 간청했지만, 예수님은 도중에서 병든 여인을 만나, 지체되는 동안에 야이로의 딸을 죽게 할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누가복음 8:40-56).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하러 오시다가 길에서 이슬 방울에 꽃잎이 짓눌린 꽃을 발견하고 그것을 바로 해주시려고 걸음을 멈추셨는지 누가 압니까?

저는 사랑으로 병들었기 때문에, 당신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사랑 그 자체이시니, 곧 병(病) 그 자체입니다. 당신은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저를 얼른 제 가족에게로 되돌려 주시려고 빨리 오실 수 없으십니다. 당신은 사랑으로 병이 드셔서, 저를 위해 태양이 떠오르게 하실 수도 없으십니다. 아버님, 예수님께서 골고다에 계셨을 때, 한 마리의 양이 구덩이에 빠져 그 양을 도와 주셔야 했었는지 누가 압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한 줄기 빛도 없이, 한 방울의 물도 없이 혼자서 고통을 감당해 내셔야 했던 게 아닙니까?

저는 당신의 율법을 다 이루어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통해 저를 이런 의무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

다.

당신은 사랑에 따른 온갖 약점을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를 도와 주시겠다던 많은 약속들을 다 지키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저를 당신의 온갖 율법에서 해방시켜 주시듯, 저도 당신이 저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임무에서 당신을 해방시켜 드립니다. 율법은 좋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일반론에 불과한 것들이지요. 당신이 제게 유일무이한 분이시듯, 당신에게 있어서 저는 유일무이한 독보적 존재이지요.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외로운 이 독방 생활의 나날들을 보낼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당신이 저를 혼자 내버려 두셨던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군요. 저는 당신과 같이 있습니다. 당신은 태양도 없이 저를 버려두셨던 것도 아닙니다. 저는 의(義)의 태양이 저의 어두운 감방에 떠오름을 봅니다.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모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우리는 거의 아무것도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장난감이 무진장으로 많은 부잣집 아이는 그것들에 싫증을 냅니다. 그러나 빈민굴에 사는 아이는 상자 하나만 있으면 그것을 밀고 돌아 다닙니다. 그는 그것을 자동차라 부르기도 하고, 마차라 부르기도 하고, 기관차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는 막대기를 타고 다니며 그것을 말이라 부릅니다.

우리도 이처럼 아주 하찮은 것들에 의존해 살면서, 우리의 상상력으로 그들을 굉장히 좋은 것으로 만듭니다.

벽을 통한 전보 통신은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습니다. 내 오른쪽으로 네 번째 방에는 지하 교회 출신의 한 소녀가 있는데, 그녀는 심한 고문을 받고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겨우 열여덟 살이고,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이 소식은 내게 일련의 생각을 불러일으켰는데, 나는 이것들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마리아-얼마나 거룩한 이름입니까!

원시인들은 남신(男神)도 가졌었지만 여신(女神)도 가졌었습니다. 그들은 좀 변형된 형태이기는 하나, 근본적으로는 건전한 성찰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최초의 계시 중 어떤 것이 그들에게 남아 있었던 것이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여성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원어(原語)로 성경을 연구할 수 있는 학자들은 누구나 "영"(spirit)이란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인 "루아"(ruah)가 여성 명사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글자 그대로 번역한다면 이런 번역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여성의 모습으로(merahefet) 운행하셨다." 예수님이 직접 사용하셨던 아람 방언(Armaic)에서도 "영"이란 말에 해당하는 단어는 역시 여성 명사인 "루아"(ruah)입니다.

꿈에 요셉에게 나타났던 천사는 그에게 정혼녀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말했는데, 히브리말로 "예수아"(Jeshuah)도 역시 여성 단어입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의 사내아이를 헬렌이나 캐더린이라고 부르라는 말과 같습니다.

여자 이름을 가진 남자, 정교회 신부의 외양에 표현된 것이 바로 이 수수께끼입니다. 정교회 신부는 반드시 수염을 기르면서 여자의 겉옷을 입어야 합니다.

내가 이 독방에서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계심을 느낄 때마다, 나는 항상 어떤 여성적인 존재도 같이 계시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사도 요한은 나와 비슷한 상황에서 밧모라는 섬에서 귀양살이를 할 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옥좌에 앉아 있는 분의 모습은 벽옥과 홍옥 같았습

니다"(요한계시록 4:3). 그러나 하늘에는 그에게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또 나타났는데, 나도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여자가 태양을 입고 달을 밟고 별이 열두 개 달린 월계관을 머리에 쓰고 나타났습니다"(요한계시록 12:1). 주석가들은 이 여자가 누구일까에 대해 온갖 추측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이 바로 성경 첫머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대로 사람을 지어 내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어 내셨다"(창세기 1:27). 즉, 하나님의 모습이 남자와 여자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는 여성의 원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카발라(Kabbala:유태인의 신비 철학-옮긴이)는 이 원리를 "마트로나"(Matrona)라고 부른다. 하나님은 모든 자질을 완벽하게 갖추고 계시는데, 그분의 자질을 남성적인 것만으로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나치스 통치하에서 구금되었을 때, 죄수들이 감옥에 있는 마당으로 나가 운동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죄수들의 두 손은 등 뒤로 하여 수갑이 채워져 있었고, 서로에게 쇠사슬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원을 그리며 도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중의 한 천주교 신부는 이것을 보고 "인간 염주"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염주가 없었으므로, 쇠사슬에 묶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염주 속의 염주알처럼 생각하며, "마리아에게 영광을"이라는 기도문을 외웠습니다. 이런 일은 신교도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마리아를 "하늘의 여왕" "천사대의 우두머리" "교회의 여왕" "인류의 여왕" 따위의 이름으로 부르는 것에 찬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드릴 자리는 하나도 남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리아에 대

한 나의 사랑과 존경심이 감옥에서의 경험을 통해 훨씬 더 커졌음은 분명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내 옆에 있는 마리아가 고문받는다는 소식을 들으니, 내 생각은 자연히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의 족보는 아담에서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마흔두 세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세어 보면, 그리스도까지 포함해서 마흔한 세대밖에 없음을 알게 됩니다. 마태는 세금 징수원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셈만은 정확히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추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는 마흔하나밖에 열거하지 않고, 마흔둘이라고 말했을까? 이것이 단순한 실수라면, 어찌하여 그것이 이십 세기 동안이나 그냥 용납되어 왔을까? 마태가 아주 교묘한 수법으로 마치 마흔두 사람의 이름을 열거한 것처럼 꾸며 어떤 비밀을 숨기려 했었음을 여러분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열네 이름을 세 번씩 묶어서 열거했습니다. 그는 두 번째 묶음의 마지막 이름인 여고니아를 세 번째 묶음의 첫 번째 이름으로 반복하고 있는데, 주의력이 부족한 독자는 마흔둘이라고 한 이름 중의 한 이름이 없다는 사실을 눈치 채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탈락된 마흔두 번째의 고리는 과연 누구일까요?

또 다른 흥미거리가 있는데, 그것은 복음서에 나오는 거의 모든 여자들의 이름이 다 마리아라는 것입니다. 성모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베다니의 마리아, 야곱과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클레오파스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단순히 "다른

마리아"라고만 기록되어 있는 마리아 등. 이만해도 벌써 여섯입니다. 하나만 더 있으면 거룩한 숫자인 일곱의 마리아가 있을 것입니다. 한 마리아가 더 없을까요?

십자가 옆에는 세 명의 마리아들만이 서 있었습니다. 여기에 관계된 성경 기록이 좀 이상하게 들립니다. "예수의 십자가 옆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 마리아가 서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의 이름도 마리아였는데, 두 자매가 같은 이름을 쓰는 일은 없습니다.

마리아를 히브리어로 바꾸면 미리암이 되는데 미리암은 "바다의 별"이란 뜻으로, 영계(靈界)의 바다 위를 항해하는 사람들에게 길을 안내해 주는 별을 말합니다. 혹 마리아라는 이름이 성경에 단순히 여자의 이름으로만 쓰인 게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이름은 마치 공산주의자들이 서로를 "동무"라고 부른다든지, 군대에 계급이 있고, 조직에 직책이 있는 것처럼 초대 교회에서 어떤 부류의 여신도들에게 주어졌던 호칭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나 동무가 되고 군대의 소령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마리아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수수께끼는 다음과 같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마태복음 12:50). 예수님에게는 여러 형제가 있었으므로, 그분과 형제의 관계를 맺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이해하기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그분의 어머니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그분은 그것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굉장한 특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자녀로 갖는다는 것은 얼마나 더 큰 특권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이 우리에게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네스토리우스(Nestorius)는 마리아를 "테오토코스"(Thetokos: 신을 낳은 사람이란 뜻)라고 부르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싸웠으나, 교회의 총회는 그의 의견을 부결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아기가 되신 하나님을 팔에 안았습니다. 마리아는 그분을 목욕시키고, 돌보아 주고, 먹이고, 키웠습니다. 그녀의 하나님이 그녀에게 의지하여 살았습니다. 그녀는 최초의, 그리고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어머니로서 독보적인 존재이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은 그녀만의 독점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당신의 어머니가 될 수 있고, 어머니가 자기의 자녀와 갖는 관계를 당신과 나눌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무슨 뜻입니까?

가장 위대한 사랑의 형태는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어머니를 향한 자녀의 사랑에는 약간의 이해 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아이는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어머니를 찾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자녀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는 용돈을 줍니다. 모든 형태의 인간의 사랑에는 어떤 형태로든 이해 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사랑만은 전적인 자기 희생입니다. 어머니는 자녀에게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줍니다.

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아들 예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을 뿐,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친절한 말 한

마디조차 듣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 슬픔에 잠긴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었으면서도 자기 어머님에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한 데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함으로써 아무런 보답도 기대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에게 드린다고 하는 최고의 기회를 자기 어머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위치에 도달한 사람들은 "마리아"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나는 가톨릭의 "성모 마리아 숭배"라는 용어가 뜻하는 바가 이런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신교도들도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족보 중 빠진 고리 이야기로 되돌아가 봅시다. 이 족보는 역사가 아닙니다. 구약성서에 열거된 유다 왕국의 족보와 누가복음서에 기재된 예수님의 족보를 한 번 슬쩍 훑어보기만 해도 이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서에 나온 예수님의 족보는 역사적 계보가 아니라 새로운 역사적 발전의 사닥다리입니다.

당신은 먼저 모든 믿는 자들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자리에 당신 자신을 놓아 보는 일로 시작해서, 아버지에 의해 희생 제물로 바쳐졌던 이삭의 경험을 당신도 경험합니다. 우리 나라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에게 끝까지 충성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녀들에게서 행복한 어린 시절을 빼앗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당신은 천사들이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하는 것을 본 야곱이 되는데, 그 환상은 그에게 영적 생활에 있어서는 한 지점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전진하지 않으면, 뒤로 미끄러지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사닥다리의 꼭대기에 계십니다. 그분과의 가장 감미로운 교제는 오직 그곳에서만 가능합니다. 당신은 유다와, 족보에 나오는 다른 모든 사람들의 삶을 당신의 삶으로 재경험하면서 새로운 경험을 자꾸만 쌓아가다가 드디어 어머니가 자식을 향해 갖는 것과 같은 태도를 하나님을 향해 갖게 되는 마리아의 단계에까지 이릅니다. 이천년 전의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는데, 이분은 복음서들이 증거하고 있는 역사적인 실재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신도 천사장 가브리엘과 만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재된 모든 세대에 걸쳐 살았던 극히 평범한 사람들이면서 죄인이었던, 그러면서도 성자들이었던 분들과의 만남으로 인해 당신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잉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영광의 소망이신, 당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The Christ in you, the hope of glory: 골로새서 1:27)가 바로 그 족보의 마흔두 번째 인물이 될 것이며, 잃어버려진 고리를 찾으려던 당신의 목표도 달성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자녀가 된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것 하나에만 온갖 정성을 다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 일에서 결코 떠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배신하면 당신을 석방시켜 주겠다는 약속으로 공산주의자들이 당신을 유혹하거나 당신을 고문할 때에라도.

네 번째 감방에 갇혀 있는 나의 사랑하는 자매 마리아에게 복이 있을 지어다. 마리아여, 은혜가 충만할지어다. 여자

중에 그대가 복이 있으며, 그대의 마음의 열매가 복이 있도다. 내 주의 모친이 내 곁에 있는 왕후의 감방에 가까이 계시니 이 어찌된 일인고? 보라! 감방 벽을 통해 두드리는 소리가 그대가 거기 있음을, 그리고 그대의 충성스러움을 내게 알려오는 순간, 내 마음 속의 아기가 기뻐 뛰놀았도다.

하나님, 성 마태가 기록한 족보의 마지막이 잃어버려진 진 고리에 다다르도록 저희를 도우소서. 아멘.

의무는 결코 끝나지 않는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편지를 쓸 수 있었습니다. 그에겐 양괴지와 펜이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도 밧모섬에서 귀양살이하면서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겐 종이도, 잉크도 없지만 그들조차도 우리가 편지 쓰는 것을 금할 수 없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에 성령으로 편지를 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편지쓰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적인 문제에도 무슨 기술이 있느냐고 물으시겠지요. 대체로 크리스찬들은 영적인 문제에 관해서 생각하거나 말하는 것이 막연합니다. 그러나 물질적인 세계에 법칙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세계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세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세계에서도 오리엔테이션이 가능합니다. 옛날의 선견자들은 천사들을 만났을 때, 자기들이 천사들을 만났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그 천사들이 어느 연대에 속한 천사이며, 그들의 이름이 무엇인가까지 - 미가엘인지 가브리엘인지 - 다 알았습니다. 당신이 물질 세계의 법칙을 알면, 물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어떤 기술을 이용할 수 있듯이, 영의 법칙을 알면 또 거기에 따르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영으로 편지를 쓰는 기본적인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나님께로 받은 어떤 메시지를 전해 주고 싶어서 정신을 집중하여 생각하고 싶은 사람에 대하여, 그렇게 집중하는 시간 외에는 절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에 대해 말도 하지 말 것이며, 그 사람을 염두에 두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 당신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관심과 사랑이 산만하게 유실되지 않은 채 집중이 필요한 시간에 다 동원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정신을 집중하여 말을 하기 전에 내 자신에게 온갖 농담을 다하고, 내 자신과 장기를 둡니다.

2.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먼저 깊은 명상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메시지 전체에 관해 깊이 사고하고, 여러분에게 꼭 알려야겠다고 생각되는 것을 가장 밀착된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 설교가 되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합니다. 나

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메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됨으로써 여러분의 영혼이 얼마나 아름다워질까에 대해 명상해야 하고 여러분은 갇혀 있는 여러분의 형제들과 한 영혼이기에 그들의 고통과 의심과 승리가 바로 여러분 자신의 것이므로,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손실일까에 대해서도 명상해야 합니다.

3. 이러한 명상에서 관조(觀照)로 옮겨가야 합니다. 나는 영적인 눈을 통하여 전에 내가 여러분을 교회에서 보던 모습 그대로 보아야 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의 얼굴을 하나씩 확인하여야 합니다. 내가 마치 여러분의 사진을 보고 있듯이 여러분이 내게 눈앞의 사람들로 여겨져야 합니다. 이보다 더욱 필요한 것은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에 따라 웃고 우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명상은 불타는 사랑을 필요로 하지만, 관조는 상상력의 발휘를 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백일몽 가운데서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런 능력을 활용하면,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편지를 쓸 수 있을 것입니다.

4. 이에 영적으로 바로 여러분 앞에 모여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당신이 권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실제 글로 쓰십시오. 처음에는 여러분이 실제로 글자를 새기듯 손가락을 움직여 쓰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5. 당신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그들이 당신의 메시지를 알아들었다는 표정을 읽기 전에는 그들의 모습이 당신의 뇌리에서 사라지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머리를 끄덕인다든지, 미소를 띄운다든지, 머리를 흔든다든지, 여하튼 무슨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정상적인 의사 소통의 가능성이 매일매일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지하 교회의 모든 죄수들과 목회자들과 크리스찬들은 이 잊혀졌던 방법을 다시 배워야겠습니다.

결국, 기도도 하나님의 마음에 성령으로 편지를 쓰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참된 기도의 방법은 내가 이제까지 묘사한 것과 비슷한데, 다만 기도하는 사람이 눈앞에 그려보는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이어야 한다는 점만이 다를 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결코 이런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여러분께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천사들이 내가 감방에서 하는 설교를 들으면서 제일 재미있어 한 것은 그들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 내가 만들어낸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 다시 한 번 해주세요"라고 간청하곤 하던 내 아들 미하이처럼 그들도 내게 그 이야기들을 다시 들려달라고 부탁하는 듯한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들 중 하나를 여러분에게 들려 드리겠습니다.

싸움을 무척이나 좋아하는 한 젊은 왕이 있어, 이웃나라의 나이 많은 왕에게 잠시도 마음 편히 쉴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나이 많은 왕은 사이좋게 지내자

고 자주 간청을 했지만, 번번히 허사였습니다. 젊은 왕이 싸움을 걸어오자, 나이 많은 왕은 자신도 젊었을 때 저질렀던 많은 어리석은 일들을 기억하고, 도대체 지혜를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나이가 있는 법이라고 생각하여, 그의 장교들에게 그 젊은 왕을 생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 왕은 붙잡혀서 쇠사슬에 묶인 채 승자 앞으로 이끌려 왔습니다. 나이 많은 왕은 그 젊은이를 불쌍히 여겼지만, 그에게 몹시 화를 내는 척하며 사형 언도를 내렸습니다. 젊은 왕은 살려만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겠다. 내일 너에게 아구리까지 가득 물을 채운 물항아리를 줄터이니, 그 항아리의 물을 한 방울도 흘리지 말고, 시내에 있는 큰 길의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그 항아리를 옮겨라. 만약 한 방울의 물이라도 흘리면, 네 목숨은 없을 줄 알아라."

그 다음날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젊은 왕이 물항아리를 옮기는 길 양 옆에는 그를 호위하는 군사들이 늘어서 있고, 그의 뒤에는 도끼를 든 사형 집행인이 따르고 있어, 그가 물을 한 방울이라도 흘리는 순간 그의 목이 잘리게 되리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고 있었습니다. 나이 많은 왕은 길 한 쪽에 모여든 구경꾼들에게는 그 젊은이를 야유하고, 다른 한 쪽에 서 있는 구경꾼들에게는 응원을 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젊은 왕은 그 일을 잘 해냈습니다. 그는 한 방울의

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나이 많은 왕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너에게 야유를 던지고 있었는데, 너는 그들에게 무어라고 대답했느냐?"

젊은이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뭐라고 대답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물항아리에 온 신경을 다 써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너에게 응원을 보낸 사람들에게는 감사 표시를 했느냐?"

"그들과 제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들의 격려가 제게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했습니다. 저는 물항아리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나이 많은 왕은 다음과 같은 충고를 들려주며 그 젊은이를 석방했습니다.

"네게는 귀중한 영혼이 맡겨져 있는데, 너는 그것을 완전하게, 아주 흠없이 깨끗하게 주님께 되돌려 드려야 한다. 그것만이 중요한 일이다. 그 일에 성공하지 못하면 너는 죽는다. 값싼 승리로 사람들의 갈채를 받으려 하지 말아라. 사람들이 너를 놀리더라도 걱정하지 말아라. 네 영혼만 돌보아라."

감옥 내의 복도에 걸려 있는 추시계의 똑딱 소리에 나는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시간이 지나가듯 이곳에서도 시간이 지나간다는 것을 의식케 됩니다. 머지 않아 나는 내 생애의 일초 일초에 대한 회계(會計)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이 나의 마흔 번째 생일입니다. 그러니 1,261,440,000초에 대한

회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이런 계산을 하고 있는 동안 몇 초가 더 지나갔습니다. 나는 한 초 한 초를 값있게 써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독방에 갇혀 있다는 사실이 나를 이러한 의무에서 해방시켜 주지 못합니다.

대체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자질구레한 일로 시간을 보내기 마련입니다. 나는 나치스 시대에 감옥 생활을 한 경험에서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죄수들은 강제 노동을 당하지 않을 때면 서로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농담을 주고 받으며, 때로는 싸우기도 합니다. 그들은 어떤 백만장자들처럼 시간을 낭비합니다.

백만 장자들은 자연의 부를 많이 이용하고 죄수들은 아주 조금 이용하지만, 두 편 다 세상에 무엇인가를 기여하는 것이 자기들의 의무라는 생각은 별로 하지 않습니다.

감옥에는 의무감에서 해방되었다는 느낌이 팽배한데 특히 독방에 갇혀 있는 사람에게는 그런 느낌이 더욱 강합니다. 이런 끔찍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 사람이 누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삶의 현장에는 핑계나 변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지금 행복을 누리고 있거나, 불행에 빠져 있거나 간에 의무는 지상 명령입니다. 조롱을 당하고, 굶주리며, 감옥에 갇혀 병들고, 부당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고문을 당하고, 독방에 갇혀 있어도 당신은 지고(至高)하신 분을 섬겨야만 합니다.

나는 내 의무를 알고 있습니다. 내 의무는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옥이라는 상황 때문에 나는 무슨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의무는 주로 무엇인가가 되는 것입니

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대체로 "나는 바로 나이다"(I am what I am)라고 번역하는데, 히브리어의 "Ehjeh asher ehjeh"의 보다 적절한 번역은 "나는 내가 되고자 원하는 것이 될 것이다"(I will become what I will become)입니다. 그분 자신이 끊임없이 무엇이 되고 있으니, 나의 의무 역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의무는 보다 더 나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밀한 곳에서 나를 지으셨을 때, 그분은 내가 내 자신이 되고, 내 방식으로 그분의 영광의 선포자가 되고,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듯, 나도 유일한 존재가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당신 자신이 되는 것은 진실되고, 사랑하고, 신심이 깊다는 것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당신 자신은 이 모든 것과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진리만 되는 것에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진리는 그에게 있어서 너무 작은 것이었습니다. 히틀러는 "진리는 자주 반복되는 거짓말이다"라고 말했지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라는 말의 전통적인 정의, 즉 "진리란 실재와 우리의 생각과의 합일(合一)이다"라는 말을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가 불가능한, 우리의 머리로써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실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사랑만이 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미워하는 법도 아셨습니다. 그분은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잘 하는 일이 한 가지 있다. 너는 니골 라오파의 소행을 미워하고 있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요한계

시록 2:6).

진리라는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emeth"인데, 원래 이 히브리어는 알파벳의 제일 첫 글자와 가운데 글자와 마지막 글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실재는 처음도 끝도 없습니다. 실재는 진리보다 더 큽니다. 진리는 희랍어로는 "alethia"인데, 어원적으로 그 말의 뜻을 캐보면 "아무것도 잊혀지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alethia"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잊어버리는 것도 있는 법입니다.

진리는 우리의 무의식의 넓은 바다에 떠 있는 작은 섬, 즉 우리 존재의 의식적인 부분에 속합니다. 사랑은 수없이 많은 인간의 감정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진리와 사랑 이상이십니다. 진리도 그분의 것이지만 신화도 그분의 것입니다. 그래서 신화도 내게는 강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나는 내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정해진 틀 속에 갇혀 있지 않는 자신이. 비록 내 몸은 이렇게 감방 안에 갇혀 있지만.

나는 이 지상에서 내가 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내가 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I will become what I will become). 이미 그렇게 하신 예수님을 나의 최종적인 목표로 정하고 나면 나는 비록 이곳에서라도 외형적인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고문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오른쪽과 왼쪽 감방에 있는 형제들이 그들을 고문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 적이 더러 있었습니다. 크리스찬인 죄수를 고무 방망이로 때리던 공산당원인 장교가 그의

방망이질을 멈추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된 셈입니까? 당신의 얼굴에 어떤 빛이 떠도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당신의 머리 둘레에는 후광 같은 것이 떠돕니다. 당신은 어쩌면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듯한 눈길로 바라봅니까? 나같으면 나를 옥에 가두고 때리는 사람을 절대로 사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당신의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리스도의 어리석은 명령에 복종할 수 있습니까?"

크리스찬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명령에 복종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라고 명령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인격을 주셨습니다. 내가 당신을 미워하고 싶어한다 하더라도 미워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종달새는 까마귀의 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그는 종달새이지 까마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크리스찬은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무 방망이는 영원히 멈춰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지옥에 있습니다. 때때로 공포가 엄습해 오는 밤이면 나는 감방 안에 있는 물컵을 봅니다. 이 물컵은 감방이 영원한 지옥이 아니라는 확신을 내게 안겨줍니다. 지옥의 저주받은 자들에게는 물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지옥에 있다 하더라도 당신은 당신의 의무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나는 사도신경에 나오는 "그는 지옥에 내려 가셨으나"란 구절을 자주 외웁니다. 그분은 고통받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선물로 부요하게 해주시려고 내려 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벽을 통

해 복음을 전함으로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합니다.

중요한 것은 항상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여건이 어렵든지 쉽든지 그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두 눈이 "하나"(single)이기를 원하셨습니다(마태복음 5:29). 히브리어에는 "의도"(intention)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뜻하신 것은 우리의 의도가 오로지 한 가지이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되고 나서 그 이상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는 것. 사람은 그의 사람 됨됨이대로 행동하며, 그의 인격에 따라 외부에서 오는 상황에 대한 반응을 보입니다.

로마인들에게 "Quod agis, agi"(네가 하는 일을 하라)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즉, 한 가지 일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기도를 하면서 불 위에 올려놓은 팬케이크가 탈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팬케이크를 구우면서는 기도하며 고요한 시간을 보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과 시간을 보내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하겠는가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일도 제대로 못합니다. 한 번에 잘 할 수 있는 일은 오로지 한 가지뿐입니다. 너무 여러 가지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은 절대로 선수가 되지 못합니다.

지상에서의 우리의 삶은 짧습니다. 앞에 두 개의 건초더미를 놓고 어느 것부터 먹어야 좋을지 결정을 못내려 굶어 죽었다는 당나귀 같은 사람들이 되지 맙시다. 하나님과 같은 인격을 갖추겠다는 단 하나의 목적에만 우리 모두의 힘

을 집중합시다. 그러면 이러한 인격이 자꾸 전염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그런 인격을 갖춘 사람들로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옥에 갇힌 삼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나는 자기들의 신앙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동료 죄수들을 순교자들이라고 생각하곤 했었습니다. 그러나 감방 벽을 통해서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그리고 벽을 통한 암호 전보망은 내 감방을 통해 좌우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 중 누구도 자기가 순교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벌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앙 때문에 그렇게도 많은 고통을 겪은 사도 바울까지도 자신을 "죄인 중의 괴수"라고 불렀습니다.

나는 그들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외양과 실체를, 사람들이 "사실"이니 "진리"니 하고 말하는 것과 그것들이 지닌 영적 의미를 구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하 교회에서 임무를 띠고 일하는 사람으로서 항상 소위 "진리"라고 하는 것만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

습니까? 나는 자신을 소개할 때 늘 가명을 썼는데, 나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사람이 정보원일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전날 어디 갔었느냐고 물음을 당했을 때,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다가는 많은 사람들이 고초를 겪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오늘도 나를 심문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크리스찬이고 목사이다. 당신이 믿는 종교 때문에도 당신은 진실만을 이야기하여야 한다."

나는 이것에 대해 내 나름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그의 요구에 응했다면, 다른 형제들이 많이 구속되었을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생각을 재평가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지하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순교자의 문제로 돌아가 봅시다. 외형적으로는 누구든 자기의 신념을 위해 죽음을 당하거나 투옥된 사람은 다 순교자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지은 죄 때문에 당신을 벌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공산주의자들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혼을 좀더 훈련시키기 위해 그들을 시켜 당신을 독방에 가둘 수도 있습니다.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 그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祭物)과 섞었다는 이야기를 듣고(누가 13:1-3) 예수님께서 보인 반응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화가 났었겠습니까? 그들의 눈으로 볼 때 이들은 분명히 모세의 율법과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순교자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갈릴리인들과 같이 "al kidush hashem"(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죽

은 사람들을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을 단순히 "죄인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분은 내용을 보셨습니다. 죄인들-모든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바로 이것입니다. 루터는 '왼편 죄인들'(sinners of the left)과 '오른편 죄인들'(sinners of the right)을 구별하고, 형편없는 악당들과 천당에 가기 위해 종교적인 규례를 다 지킬 뿐 아니라 심지어 자기 희생까지 하는 준법가들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다 죄인들입니다.

나는 죄인 이외의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나보다 더 악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나를 자유롭게 놓아 줄 수 있는 그분께서는 나의 잘못에 대한 벌로 지금 나를 감옥에 가두어 놓고 계십니다. 삼손은 모세가 명한 규례를 위하여 고귀한 투쟁을 벌인 대가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감옥에 가두었지만, 실은 그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투옥되었던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내가 받고 있는 벌을 진심으로 겸손하게 받아들인다면 나의 힘이 자랄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까지는 다른 모든 죄인들처럼 머리를 짧게 깎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는 머리를 길러도 좋다는 명령이 시달되었는데, 그것은 내가 곧 법정에 끌려 나가게 되리라는 틀림없는 암시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판사들 앞에 내 보낼 때는 우리를 조금은 인간답게 보이도록 만들어 줍니다. 햇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이 지하 감옥에서는 머리가 아주 느리게 자랄 것입니다. 그러나 자라겠지요. 이 일로 인해 삼손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머리카락이

자람에 따라 그의 힘도 자라갔습니다.

나는 힘의 화신(化身)이 되어 크리스찬으로서 내 평생에 죽인 것보다 더 많은 블레셋인들을 내가 죽을 때 죽일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들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들을 죽이고 말겠습니다.

일단 이러한 힘이 내게 돌아오면, 나는 더 이상 나의 석방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이 세대는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힘의 사람들을 배출해 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까지도 알려져 있지 않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힘, 이때까지 숨겨져 온 영적인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다 하더라도 신전을 무너뜨리고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두운 감방에 갇혀 있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태양이 빛나게 만들 수 있으며, 자신들은 슬픔과 비통에 잠겨 있더라도, 많은 사람의 영혼을 기쁨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아, 나도 삼손이 감옥에서 되었던 바로 그런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참된 예배는 사마리아인들의 성전이 서 있던 게리짐산이나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참된 예배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반대하는 모든 것을 죽일 수 있는 힘이 자라는 것입니다.

죄란 사랑의 승리를 방해하는 것을 파괴하는 일 이외의 어떤 일에 낭비되는 내 생명의 일초 일초입니다.

어떤 상황 아래서도 죄가 되는 행위나, 언제나 선하기만 한 행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진흙으로 더럽

혀져 있는데, 그 진흙 속에는 많은 사랑의 행위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어떤 술주정뱅이가 당신에게서 얻은 돈으로 술을 사서 마시고 자기 아내를 때린다면 그에게 베푼 자선은 오히려 죄입니다. 반면에 유다와 야엘(사사기 4:17-22)은 사람을 죽였지만, 그들은 폭군들의 손에서 세상을 구했습니다. 주위에 있는 여러 감방에는 사람을 죽인 애국자들이 많이 수감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자유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게으른 사람을 위해 스웨터를 짜주는 일은 선한 일이고, 히틀러를 죽임으로써 죄없는 수 백만의 사람들을 학살하는 일을 저지하려던 독일 장군들의 음모는 살인 행위였다고 못박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내게 있어서 어떤 행위에 대한 유일한 판단 기준은 그 행위가 사랑의 최후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길을 준비하는 행위이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 뿐입니다.

우리는 수단으로서의 선(善)과 목적으로서의 선(善)을 구별하여야 합니다. 만일 내가 모든 사람들을 심지어 속임수와 폭력으로 사랑의 승리를 방해하는 사람들까지 선하게 대한다면, 선은 절대로 승리하지 못할 것입니다. 나의 유순함 때문에 악한 사람들이 이득을 볼 것이며, 악의 위치를 확고하게 만들 것입니다. 만약 내가 선을 나의 목표로 삼는다면, 나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악하다고 낙인을 찍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유혹하는 영들을 보내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를 심문하는 사람들을 혼돈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거짓말을 합니다. 내가 주의하고 조

심해야 할 것은 오로지 그러한 나의 태도에 대해서 입니다.

하나님은 시스라, 아각을 죽인 사람들을 칭찬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시스라를 죽인 야엘을 찬양한 말들이 곧 성모 마리아를 찬양한 천사장의 말들과 똑같습니다.

> 켄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여
> 어느 여인보다 복을 받아라
> 천막 속에 거하는 어느 여인보다
> 복을 받아라(사사기 5:24).

이것은 그녀가 하나님의 원수를 죽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내 감방이 있는 이쪽 복도에 접해 있는 한 감방에는 니나라는 루마니아 여자가 있는데, 그녀도 야엘과 비슷한 일을 했습니다.

수천 년 전에 외국인 침략자를 죽이는 일이 옳은 일이었다면, 오늘날에도 그런 일은 옳은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신약성서에는 구약성서에 등장하는 그런 인물들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 자신들을 보호할 권리가 있었다면 루마니아인들도 자신들을 보호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랑의 시가인 고린도 전서 13장을 쓰도록 영감을 내려주신 바로 그 하나님의 영이 에스더의 저자에게 영감을 부어주셨는데, 에스더에 보면 하나님의 원수들이 가차없이 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이 두 권의 책이 다 성서의 일부가 되도록 주선하셨습니다. 더 더욱 기억해야 할 일은 초기의 크리스찬들에게는 두루마리로 된 구약성서만이 있었을 뿐, 신약성

서는 수십 년 후에 씌어지기 시작하여, 일 세기 말에 가서야 완성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송가와 원수를 뿌리채 뽑아 버릴 각오를 가지라고 가르치시는 책들을 한데 모으셨는데,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를 온전케 만들어 사랑으로 하여금 최후의 승리를 거두게 하겠다는 유일한 목적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독재자들에게 항거하는 피비린내 나는 싸움과 부드러운 사랑의 행위가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생애에 있어서 그분의 종이 되고, 모든 이들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최고의 목적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선한' 행위나 '악한' 행위나 사랑을 승리로 이끈다고 하는 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 문제는 내게 있어 아주 절실한 문제입니다. 내 주위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모두 공산주의 독재자들에 대항하는 애국적인 투쟁에 참여한 사람들로 다른 사람들을 죽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벽을 통해 암호로 그들의 죄를 고백해 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위가 과연 죄였을까요? 나라도 그런 투쟁에 참여하지 않았을까요?

도스토예프스키의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에서 이반은 이런 뜻의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다는 건 아니란 점만은 알아줬으면 좋겠어. 내가 용납할 수 없는 것은 그분이 창조했다는 이 세상, 그분의 손으로 만들어졌다는 이 세상이야… 나는 어린아이처럼 확신해… 마지막에, 이 세상이 끝나는

날에, 영원한 조화의 순간에,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속량(贖良)하고도 남을 만한 무언가 아주 고귀한 일이 일어나리라는걸… 그러나 나는 그것도 용납할 수 없고, 또 용납하고 싶지도 않아… 나는 차라리 아무런 복수도 하지 않은 채 이 고통을 그대로 받고 싶어… 그리고 최후의 하모니를 위해 우리가 치루어야 할 대가가 너무 비싸서, 우리는 그렇게 비싼 값을 지불하고 거기에 들어갈 능력이 없단 말이다. 그게 바로 내가 서둘러 나의 입장권을 되돌려 주려는 이유야. 만약 내가 정직한 사람이라면, 가능한 한 일찍 그걸 되돌려 주어야 하거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거야. 알료샤,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만 가장 명예로운 방법으로 그분에게 내 입장권을 돌려 드리려는 것 뿐이야."

이반은 계속해서 알료샤에게 말합니다.

"내가 묻는 말에 네 자신에게 솔직하게 대답해 보라. 최후에 가서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고, 드디어 그들에게 평화와 휴식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인간의 운명이라는 대건축물을 세우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단 하나의 어린 생명, 예를 들면 조그마한 주먹으로 가슴을 치며 우는 어린아이를 고문할 필요가 있고, 또 고문하지 않을 수 없다면, 그리고 그의 억울한 작은 눈물 방울 위에 이 건축물을 세워야 한다면, 알료샤, 너는 그 건축물의 설계사가 되겠노라고 승낙하겠니?"

"아뇨, 승낙하지 않겠어요."

라고 알료샤가 조용히 대답한다.

그러나 나의 대답은 "네, 승낙하겠습니다"이다. 이것이 아

브라함의 대답이었다. 그는 바로 이것을 위해 자신의 외아들을 희생시킬 각오가 되어 있었다. 아브라함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린아이의 몸을 이루고 있는 5×1000^9개의 원소들이 바로 영혼이 깃들고 있는 성역, 아니 차라리 영혼의 감방이라는 사실과, 영혼은 그 감방을 벗어날 수만 있다면 기뻐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들은 살인자가 실은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예정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라는 바가바드 지타(Bhagavad Gita)의 말을 믿는다.

자유나 조국이나 하나님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사람을 죽이는 일도 옳은 일이다. 유대인들이 압제자에 항거해서 싸운 일이 거룩한 역사라면, 공산주의의 독재를 물리치기 위해 루마니아인들이 싸우는 것 역시 거룩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애국 투사들이여, 그대들은 죄를 범하지 않았다.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새 노래로 야훼를 찬양하여라"(이사야 42:10)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다. 이것은 전쟁에 나가는 용사의 노래이다. 누구도 주님만큼 용기 있는 용사는 없다. 그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기독교는 우리에게 선하게 되기를 가르치기보다는 선을 위해 용사가 되라고 가르치고 있다. 우리는 싸우지 않고 선을 위한 용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자연히 추상적인 악이나, 악한 기관들 뿐 아니라, 악한 사람들도 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시작이시고 끝이시다. 그 중간은 우리의 것이다. 우리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미래가 어떠한 것인지 모른

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에만 임하기를 원치 않는다. 정의와 평화와 사랑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오늘 싸워라. 아멘.

내 자신의 영혼에게

나의 영혼이여.

나는 더 이상 나를 창조하신 그분께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내 목소리로 그분께 부르짖을 수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공간을 초월하여 내 형제들과 자매들에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오늘 처음으로 무슨 분명한 이유도 없이 갑자기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전에 가끔 감옥의 정적을 깨뜨리는 이런 고함 소리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 모두는 우리 중 어느 한 사람이 미쳐버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고함 소리는 이내 그치곤 했습니다. 나는 간수들이 미쳐버린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조용하게 만드는지 몰랐었습니다만,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나를 아주 꽁꽁 묶고 고문 조끼를 입히고, 내 입에는 재갈을 물렸습니다.

내가 말을 걸 수 있는 사람은 나의 영혼, 그대 뿐입니다.

다윗은 가끔 자기 영혼에게 주님을 찬양하라고 요청하기도 하고, 왜 괴로워하느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다윗 역시 미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았습니다. 성서에 보면 그가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서 얹혀 살 때 그가 미친 사람 행세를 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심리학자들은 미치기 쉬운 성향을 가진 사람이 아닌 이상 미친 척하는 사람은 없다고 말합니다. 나도 다윗이 한 것과 같은 일을 하겠습니다. 나도 이제 이 완전한 침묵 가운데 그대, 나의 영혼에게 설교를 하겠습니다.

나는 제일 먼저 그대에게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고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나는 자존자"(I am)라고 선언할 것을 명합니다.

육체가 완전한 만족을 얻는 데에는 많은 것이 필요치 않습니다. 간단한 음식과 따뜻함과 운동과 휴식과 배우자 한 사람만 있으면 족합니다. 나는 내 육체에 필요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행복하지 않았었습니다. 나는 무엇인가를 갈망하여 한숨짓고 있었습니다. 내 육체가 자기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을 때에도 만족을 모르던 이 [나]는 누구였습니까? 그것은 그대 나의 영혼이었습니다.

순수한 과학적 호기심에서 나의 육체에는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않는 멀리 떨어진 은하계에 관해서, 선사 시대의 사실에 관해서 알고 싶어 했던 것은 그대였습니다. 예술과 철학에 기쁨을 느낀 것도 당신이었지만, 과장이나 오히려 육체에 해악을 끼치는 육체가 좋아하는 사치스러운 것들에 기쁨을 느낀 것도 그대였습니다.

나의 영혼이여, "사람은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마태

복음 4:4)는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옳은 말씀이었습니까? 나는 화요일마다 한 조각의 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빵이라니! 그러나 나는 식물 인간처럼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는 살고 있습니다. 나는 독방에 혼자 갇혀 내가 내 자신에게 들려 주는 농담에 마음껏 웃기도 하고, 정치에 대한 생각을 하기도 하고,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나라들이 이렇게 다스려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나는 예술 작품을 기억하고,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그대입니다. 나의 영혼이여, "나는 존재한다"라고 말하십시오.

며칠 전 더 이상 고문을 견딜 수 없었던 한 형제가 다른 형제들을 배신하게 될 것이 두려워 심문을 받던 중 3층 창문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는 건강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죽임으로써 신체의 욕구를 충족시키려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대는 나의 비밀을 압니다. 그대는 내가 어디에다 서른 개의 수면제를 감추어 두었는지 압니다. 그 서른 개의 알약을 한꺼번에 먹기만 하면 나는 유다 같은 배신자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자살 행위들은 사랑과 명예를 위한 행위들로, 이들이 지하 교회를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과 품위와 명예는 육체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 그대에게 속하는 것입니다. 내 입에는 재갈이 물려져 있어, 나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대는 더욱 큰 소리로 "나는 존재한다"고 자신의 존재를 주장해야 합니다.

그대는 내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춤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대는 내 발목에 무거운 쇠

사슬이 채여 있을 때 내가 춤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터질 듯한 기쁨으로 춤춘 것이 누구였습니까? 나의 육체는 아니었습니다. 나의 육체는 춤을 출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나의 몸을 자극하여 춤을 추게 만들 음악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나의 영혼, 그대였습니다.

나의 영혼이여, 그대 자신을 잘 파악하고,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값어치가 그대에게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육체는 죽을 것입니다. 지금도 내 주변에 있는 죄수들이 굶주림과 추위와 고문 때문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죽는 것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진주를 지킨 셈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원수들이 그분이 가졌던 모든 것을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그분은 알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분의 원수들은 기뻐하며 그 주위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그분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라는 말씀으로 그들의 즐거움을 망쳐버렸습니다. 그분은 그들이 빼앗아 갈 수 없는 한 가지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의해 그분은 영원히 사시고,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나의 영혼이여, 당신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대는 "회개"라는 말이 성서상에서 의미하는 뜻 그대로 회개만 하면 됩니다. "메타노이어(metanoia)"란 희랍어는 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란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단어인데도, 현대의 언어에서는 회개를 그런 뜻으로 혼동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원적으로 "메타노이어"는 "마음을 바

꿈" 혹은 "이성을 넘어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기에 해당하는 표현들에는 "새 마음을 받다" "새 피조물이 되다" "자기를 부인하다" "철저하게 깨끗해지다" 등이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여, 그대에게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왜 그대에게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한지 말하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영혼의 내용을 바꾸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적인 생각이나 감정 대신 하늘의 생각과 감정으로 그들의 영혼을 채웁니다. 그러나 망가진 차의 승객을 갈아 태운다고 그 차가 고쳐질 수 있습니까? 자신들이 크리스찬이라고 자신들을 속이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이 고장난 차는 누가 타든지 간에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생각과 감정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을지라도, 당신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영혼의 긴밀한 구조와 그것의 심리적인 과정과 근본적인 결함이 옳지 못했었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뿐만 아니라, 바로 그 영혼 자체와 그것의 복잡한 조직에도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들에게서 생각과 감정과 행동이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나의 영혼이여, 그대에게 있는 한 가지 큰 결함을 지적하겠습니다. 그대에게 사물의 균형 감각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중하냐? 너희들은 더 중요한 율법은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마태복음 23:17, 23)라는 말씀으로 같은 생각을 전

달하려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가 주님보다 더 강하단 말이냐?"(고린도전서 10:22)라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다 크고, 보다 중요하고, 보다 강한 것들과 보다 작고, 보다 덜 중요하고, 보다 약한 것들을 구별해야겠습니다.

그대 나의 영혼이여, 그대는 모든 것이 중심으로 하고 회전하는 축(軸)이 되었습니다. 내가 재갈에 물려 말을 할 수 없듯 동물들도 말을 할 수 없습니다만, 그들에게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알람의 당나귀에 대한 이야기가 이것을 증명합니다. 우리 집에서 키우던 개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했었던가! 그놈은 내가 체포되리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두 주일 동안 안절부절하며 계속 짖어댔습니다. 그러나 동물들은 말을 못합니다. 그대는 동물들이 말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해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대는 내가 재갈에 물려 있는 데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 체제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재갈에 물려 있습니다. 누구도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다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고문복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천사들은 영원한 쇠사슬에 채여 있습니다. 이 별에서 저 별로 훨훨 날아다니곤 하던 날개달린 천사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얼마나 더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나는 별로 보잘 것 없는 작은 존재인 나 한 사람의 고통에 온 정신이 다 사로잡혀 있습니다. 왜 그대는 바른 균형 감각을 가질 수 없습니까? 왜 그대는 우주적인 고통 가운데 당신 몫으로 겪고 있는 고통에 비례해서, 그리고 별로 중요하다고 할 수 없는 그대가 이 무한하고 영원한 우

주에서 갖는 의미에 비례하여 걱정하지 못합니까?

그대는 마치 그대가 우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가 그대를 위해 존재하는 양 어떤 사물이나 사건이나 사람이 당신에게 어떤 이익을 끼칠 것인가, 아니면 어떤 해를 끼칠 것인가에 따라 그들을 판단합니다.

참다운 회개는 이러한 비례 감각이 뒤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계십니다. 나는 지극히 귀중한 존재이기는 합니다만, 셀 수 없을 정도로 수 없이 많은 존재들 중의 하나에 불과하며, 수십억의 존재들은 제각기 하나님께서 배정해 주신 운명을 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한 영혼은 자질구레한 것에 마음을 쓰지 않습니다. 인간의 세계 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엄청나고 긴 이변(異變)을 겪고 있는데, 나는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전쟁 동안에 내가 어떤 집에 찾아갔더니 그 집 부부가 크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찬장의 먼지를 닦지 않았다고 야단을 쳤기 때문에 일어난 싸움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수십만 명의 목숨이 스탈린그라드에서, 런던에서, 불란서에서 그리고 우리 나라에서 죽어 가고 있었습니다.

영혼 속의 이러한 균형 감각의 결여라고 하는 결점이 고쳐지지 않으면, 무신론자였던 사람이 종교적인 사람으로 변했다는 사실이 그 사람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합니다. 영혼은 계속해서 사소한 일로 바쁠 것입니다. 단 지금의 사소한 일들이란 종교적인 사소한 일이라는 차이가 있겠지만. 당신이 근시안인 당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대상은 달라지겠지만 당신의 눈은 여전히 근시안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대 나의 영혼이여, 커다란 유기체의 한 세포처럼 자신을 거대한 기계의 작은 부품이라고 생각하십시오. 피 속의 백혈구는 온몸이 살고 건강을 유지하게 하려고 자신을 희생합니다. 그대도 숨겨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고통을 당해야 합니다. 백혈구가 왜 자기가 죽어야 하는지 알지 못하듯 당신도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 알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대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만족하십시오. 모든 고통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다는 이 최종적인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고통을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을 기쁘게 받아들였고, 십자가에 달려서조차 자신에 대해서가 아니라 자기 옆에 달려 있는 강도와 자기의 어머님과 그리고 당신에 대해 생각하셨습니다. 광대 무변한 고통의 바다에 당신의 작은 고통일랑 묻어 버리십시오. 고통 속에 의미가 있다고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아멘.

육신을 입으신 말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히브리어에서 "davar"이란 단어는 "말씀"(word)과 "실제"(the real thing) 둘 다를 의미하는 동음이의어(同音異義語)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 민족의 언어에서 말은 어떤 실재의 상징이나 방향일 뿐만 아니라 말 자체가 실재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가 복음서의 서론을 히브리어로 구상했을 때, 그는 이런 뜻으로 말하려 했던 것입니다. "태초에 실재가 계셨으니, 그 실재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그 실재가 곧 하나님이었다."

나는 밤에 거의 잠을 자지 않습니다. 이런 밤새움에는 큰 축복이 따릅니다.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시편 134:1). 사람들은 나쁜 짓을 하기 위해 밤에 모입니다. 강도질과 살인과 강간 사건은 밤에 일어납니다. 스탈린은 밤에 자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는 밤에 사람들을 불러들여 대량 학살을 계획했습니다. 이러한 악의 세력과 대항하기 위해 성도들도 밤샘이란 무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낮에 일을 하는 사람들은 밤샘을 할 수 없습니다만, 나는 독방의 죄수라는 특권이 있어서 밤샘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영적 훈련으로, 온 세계를 기도로 영적으로 여행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며 나의 밤을 지새웁니다.

매일 밤 나는 시를 짓기도 합니다. 내게는 그것을 써놓을 필기 도구가 없기 때문에 마음 속으로 시를 짓습니다.

재능없는 영혼의 볼품없는 시들이여! 위대한 시인들의 그것들과 비교해 볼 때 얼마나 초라한 시들인가! 그러나 내 나름으로는 운율과 각운을 맞추느라고 애쓰다 보니 시인들이 자기들의 시에다 사랑과 지혜와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 얼마나 애쓰는지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시 속에 짜넣어진 단어들은 내가 고문복에 갇혔을 때와 같은 느낌을 가질 것입니다.

이천 년 전에 말씀이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말씀은 오늘날에도 단순히 한 편의 시가 되기보다는 육신이 되고 싶을 것입니다. 말씀은 지금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사랑의 행위를 수행하고 의를 위해 힘있게 외치고, 잘못을 꾸짖을 수 있는 사람-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모든 사람, 심지어 정의를 위해서 자신의 손으로 채찍질하여야만 했던 사람들까지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물로 바칠 수 있는 사람의 몸으로 다시 한 번 육신을 입고 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의 영은 항상 육신으로 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목수 예수의 몸으로만 나신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로도 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고통의 바다에 말들을 던질 뿐이고, 수많은 말들은 실재를 대신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완전한 정적(靜寂)의 세계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곳의 정적은 완벽하여, 간수들의 발자국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말을 하나씩 잊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길고 분명한 문장을 생각해 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 정신을 망가뜨리려고 내게 갖다 주는 음식 속에 약물을 집어 넣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깊은 바다 속의 물고기처럼 끝없이 깊은 정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초대 크리스찬들이 서로를 알리던 비밀 표식이 물고기였습니다.

나는 이 정적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 때로 시를 짓는데,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름다운 시 한 수와 같은 사람들로 만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원문인 희랍어로 읽으면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시(poem)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시인이십니다. 그분의 시들은 맑고, 융통성이 있고, 뜻이 풍요롭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시들을 몸으로 표현하셨는데, 각 시는 각기 다른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시는 지혜를, 또 어떤 시는 실질적인 상식을 주제로 가지고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의 성품은 다양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서로

다르고 상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모든 이들을 다 기쁘게 받아들이십니다.

에베소서에 따르면 목회자의 역할은 설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자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나도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나는 내 자신을 사랑의 전으로 만들어, 옛날의 동방 박사들이나 목자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축소판을 보고, 나에게서 구주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나는 책방에서 설교집이나 시집을 파는 세상보다는 각 남자와 각 여자들이 만든 고귀한 사랑과 멜로디와 색체로 가득찬 시인 세상이 훨씬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내가 그런 세상이 오는데 방해물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여기 이 감옥에서 나를 죽이시기를! 여하튼 세상은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나는 라반의 본을 따름으로써 그러한 나라가 속히 임하도록 나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반(Laban)이라는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희다"는 뜻입니다. 그에게는 라헬과 레아라는 두 딸이 있었는데, 야곱이라는 젊은이가 아름다운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라반은 야곱이 못생긴 레아를 아내로 맞기 전에는 라헬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라반은 공정한 사람으로, 차별적인 사랑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크리스찬의 사랑은 선하고 악한 것 둘 다를 포용하여야 합니다.

괴테는 색채를 빛의 고통이라고 불렀는데, 그 이유는 색채란 빛이 프리즘을 통과할 때 그 빛을 갈기갈기 찢어 분해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분리되지 않은

완전한 빛은 흰색 "라반"입니다. 흰색은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 모든 것을 포용할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것도 포용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영혼을 흰색으로 가꾸어 가는 사람은 끊임없이 울어 바라보고 싶지 않은 눈을 가진 사랑받지 못하고 사랑스럽지도 않은 레아들로 가득찬 세상을 예배하는 심정으로 헌신적으로 살아갑니다.

이 세상은 아무도 사랑해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가슴에 상처를 안은 여자들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그들은 사랑을 받지 못하여 점점 더 보기 흉하게 되어 가고, 그래서 야곱 같은 성자도 그들을 원치 않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라헬과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싶어합니다. 그는 라헬을 위하여 십사 년을 일했지만 그 기간이 겨우 며칠 같게만 여겨졌었습니다. 그는 레아를 위해서라면 단 하루도 일하지 않았을 겁니다.

교회(ecclesia) 안에는 선한 이와 악한 이, 아름답고 추한 이들을 다 받아들이는 작은 교회(ecclesiola)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보르기아와 같은 죄수와 아씨씨의 성 프랜시스를 같은 교회 안에서 하나되게 하신다면, 또 우리를 배신한 신부들과 나와 같이 고생 당하는 순교자들을 장소에서 만나게 하신다면, 나도 그들 모두를 사랑하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세리들과 죄인들을 회개시키시려고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심으로써 먼저 보기 흉한 레아들에게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감옥 안의 내 주변에는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느끼지 못하는 아름다운 라헬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나

중 언젠가는 예수님과 함께 앉게 되겠지요.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모든 사람을 사랑하되, 당신의 사랑 중 가장 큰 사랑은 제일 보기 흉한 이들에게 보이십시오. 그들은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당신의 사랑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나와 같이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 여러분은, 여러분을 고문하는 공산주의자들과 우리를 배신한 사람들에게 가장 큰 사랑을 보여야 합니다. 아름다운 영혼들은 당신의 사랑의 표시가 없이도 견디어 낼 수 있습니다. 그대들의 에너지를 가장 필요한 곳에 쓰십시오.

나는 특히 우리를 박해하는 공산주의자들과 타협하고, 자기들의 형제를 배신한 목사들과 신부들에게 여러분의 사랑을 보일 것을 호소합니다. 러시아에서는 지하 교회의 크리스찬들이 이러한 배신자들에게 사형(私形)을 가하거나 칼로 찌른 경우가 여러 번 있었는데, 우리 나라에서도 사태가 이런 방향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지하 교회는 배신자들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어떤 다른 방도가 없을 때에는 폭력에 호소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교회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별로 언급을 하지 않지만, 초기의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극단적인 해결 방안입니다. 나치스하에서 우리는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를 감옥에 보낸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우리 속에서 말씀이 육신으로 혈연(血緣)하여, 우리를 체포하러 몰려오는

무장한 무리를 이끌고 와서 유다처럼 우리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사람까지도 용납하고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어린이들의 주일학교

나의 사랑하는 어린이들이여!

나는 오늘 공산주의자들에게 심한 매질을 당했습니다. 결국 나는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내게 찬물을 끼얹어 의식을 차리게 하고는 다시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최악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문이 활짝 열리면서 내가 심문받고 있는 방으로 내가 알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밀려 들어왔습니다-긴 수염을 기른 다비레스큐 형제, 마리노브 형제, 나이 많은 이오네스큐 자매와 수잔느 자매 등 내가 몹시 사랑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들이 어떻게 하여 감옥 안에 들어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나에게 매질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단 한 번도 잘못해 준 일이 없는 그들이. 그때 다시 문이 열리면서 내 아내 빈체아와 아들 미하이가 들어왔습니다. 그들 역시 내게 침을 뱉으면서, 나 같은 사람을 남편과 아버지로 갖게 된 것을 창피하게 여긴다면서 나를 마구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미하이는 나를 치려고 그의 주먹을 내밀었습니다. 그건 너무 지나친 일이었습니다. 나는 다시 기절했습니다. 내가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 내 주위에는 나를 심문하는 사람들만이 서 있었습니다. 그 모든 장면이 다 환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나는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미쳐버린 것을 알았습니다. 미친 사람들의 고함 소리가 천정의 높은 복도를 통해 울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사랑하는 어린이들, 그대들이 외로운 나의 감방을 찾아 주는군요. 그대들은 정말로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나는 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이곳"이라고 부르는 이곳인지, 아니면 미친 사람의 이곳인 나의 "이곳"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대들은 이곳에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어린이들이여, 나의 주일학교 교실을 채우고 있는 것은 비단 그대들 뿐만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내가 그대들에게 바른 이야기를 들려 주나 살펴보고, 자신들도 예수님에 관한 아름다운 이야기를 듣고 싶어 찾아온 그대들의 수호 천사를 이 방 안에서 봅니다.

자, 보세요. 저기 거룩한 아기, 바로 그분이 계신 것을. 아주 먼 옛날 성서를 처음으로 라틴어로 번역한 성 제로옴이라는 성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아기의 모습으로 그분에게 나타났었답니다.

제로옴은 우리 주님께서 탄생하신 바로 그 베들레헴에서 성서 번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아기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성자님은 이 광경에 너무 감격이 벅차 올라서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드렸

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제 마음을 다해 당신께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이 당신을 가장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아기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늘과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이다. 그대가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겠는가?"

성자님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당신께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도승이기 때문에 많지는 않지만 제게 있는 돈을 다 드릴테니 받아 주시겠습니까?"

아기는 여전히 미소를 머금은 채 대답했습니다.

"너의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나에겐 돈이 아무 쓸모가 없다."

성자님은 계속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당신을 빈 손으로 돌려보낼 수는 없습니다. 무얼 드리면 받아 주시겠습니까?"

그러자 아기님은 매우 엄숙해 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그대가 내 가슴을 기쁨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선물을 가져오고 싶다면, 나에게 그대의 모든 죄와 욕망을 다오. 나는 그들을 위해 다시 십자가 위에서 죽겠다. 이것처럼 내 마음을 기쁨으로 채울 다른 선물은 없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이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여기, 우리 가운데에 아기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에게 이런 선물을 드립시다. -우리의 불성실, 이기심, 분노, 원망을. 그러면

그분은 기쁘게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파루아의 성 안토니오도 어린아이였을 때 예수님을 만났었습니다. 안토니오는 자기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누가 왔나 보려고 달려나갔습니다. 문을 열자 싸늘한 겨울 날씨에 떨고 서 있는 누더기를 걸친 거지를 발견했습니다. 안토니오는 거지를 불쌍하게 여겨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버님에게 가서 당신에게 따뜻한 옷을 드리라고 부탁해 볼께요."

거지가 대답했습니다.

"당신네들이 사는 세상은 참 춥군요. 그러나 나는 옷을 구걸하러 오진 않았습니다."

어린아이가 다시 말했습니다.

"굉장히 배가 고프신 모양이군요. 들어오세요. 우리 어머님이 당신에게 따뜻한 음식을 대접할 것입니다."

거지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배가 고프긴 하지만, 음식을 구걸하는게 아닙니다."

안토니오는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왜 당신은 우리집 문을 두드리셨어요?"

거지가 말했습니다.

"나는 너에게 네 심장을 나에게 달라고 부탁하러 왔단다."

아이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제 심장을 당신에게 드리면, 나는 죽을 거예요."

그러자 거지는 어깨에 메고 있던 자루를 내려서, 거기에서 몇 개의 심장을 꺼내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심장이고, 이것은 막달라 마리아의

것이고, 이것은 성 이그나시우스의 것이다. 나에게 심장을 준 모든 사람들은 죽기는커녕 오히려 영원히 살고 있단다."

그러자 안토니오는 자기 앞에 서 있는 거지가 바로 예수님 자신임을 깨닫고 그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분에게 우리의 심장[가슴]을 드립시다.

그러면 나는 그분과 그대들과 그대들의 수호 천사들에게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은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을 제대로 학교에 보낼 수 없었습니다. 아이가 열두 살이 되자 요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젠 너도 놀면서 꿈이나 꾸는 일은 그만 해야겠다. 너도 나처럼 목수가 되어야겠다."

그 다음날 요셉은 나무를 자르려고 아들을 데리고 숲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무에 도끼를 대려할 때마다 아이는 그를 말렸습니다.

"아버님, 성서가 살생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걸 아버님도 아시잖아요? 이 나무는 아직 어려서 제대로 제 수명을 다 살지 못했습니다. 빛을 받으려고 잔뜩 가지들을 치켜 올리고 있는 모습을 좀 보세요. 일 년만 더 자라게 내버려 두면, 이 나무를 자르려고 덤벼들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 나무도 자르지 마세요. 저 나무 밑에 얼마나 많은 개미들이 있는지 보세요. 저 나무를 자르시려다 많은 개미를 죽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저 나무도 살려 주세요. 저 나뭇가지에는 많은 새들이 모여 사는 둥지가 있어요. 그들의 지저귀는 소리가 하늘에까지 들릴 거예요. 어린 새들을 죽이게 되면, 아버님은 별들 너머에 있는 나라에 가

서 그들을 죽인 죄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무도 베지 마세요. 톱날이 나무의 몸에 닿는 순간, 톱질 소리가 하늘로 날아 올라가서, 우리에게 사람과 나무들, 동물과 새들, 꽃과 식물들에게 자비를 보이라고 명령하신 하늘 아버님의 거룩하신 눈에 눈물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열심히 간청을 하는데다, 너무 많은 눈물이 그의 뺨을 적시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그를 위로하기 위해 나무 그늘에 앉았습니다. 그 주일에는 두 번째의 안식일을 맞게 되었던 거죠. 한 나무 잎새가 다른 나무 잎새에게 속삭였습니다.

"주님이셔."

개미들이 두 사람의 발 아래로 몰려와 놀았습니다. 새들은 즐겁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가 바라던 소원이 이루어졌네".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어린 예수는 요셉의 무릎에 머리를 뉘였습니다. 요셉은 아이의 곱슬머리를 손가락으로 매만졌습니다. 아들이 스승이고, 아버지가 제자였습니다. 천사들은 이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버님, 왜 도끼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셔요. 아버님도 쇠로 만들어진 연장은 다 악한 카인의 후예들이 만들어낸 것이란 사실을 아시잖아요? 로마 군인들이 아버님에게 사람을 매달 십자가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을 때도, 아버님은 한 나무의 생명을 단축시키셨습니다. 저는 사형장으로 자기들의 십자가를 메고 가는 사람들을 보았어요. 그 사람들은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 자꾸만 넘어지곤 했어요. 아버님은 저도 그렇게 제 일생을 마치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인류를 위해 제 생명을 바치기 전에, 한 나무가 저 때문에 생명을 잃게 될까요? 저는 어른들이 나뭇가지를 자르는 걸 볼 때마다 웁니다. 그것들은 아이들을 때리는 회초리로 사용되거든요. 사람들은 잔인한 일을 하려고 생명을 가진 것을 자릅니다."

기름부음을 받는 제사장의 턱수염을 타고 기름이 흘러내리듯, 눈물이 요셉의 수염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는데, 그것은 아들의 말이 그의 가슴에 깊이 와 닿았다는 징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변명을 하려 했습니다.

"목수가 나무를 불쌍하게 여기면, 그 목수는 굶어 죽게 될 것이다."

그는 너무 일찍 말해 버린 것이었습니다. 옳은 일을 한 결과로 죽게 된다는 생각이 기름진 땅에 떨어진 셈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목수일을 하기 위해 나무를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굶어 죽는다면, 우리는 죽음이 없고, 하루 종일 서로를 사랑하기만 하는 나라로 갈 거예요. 그곳에 가면 어머님도 더 이상 우시지 않을 거예요. 여기서는 사람들이 어머님을 조롱한다는 것을 아버님도 아시지요. 어머님은 저의 오른편에, 아버님은 저의 왼편에 계실 것이고, 저는 두 분 가운데 서서 두 분을 사랑할 거예요.

저는 목수가 되지 않고, 나무들이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려고 그들을 위해 죽는 사람이 될 것이고, 하늘에는 다시 한 번 해가 높이 떠오를 거예요. 저는 나무들의 생명을 빼앗지 않겠어요."

그날 나무들은 목숨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아기 예수가 그들의 구주였지요. 어두운 숲을 위해 그분은 구름없는 맑은 날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목수인 요셉은 큰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먹여 살려야 할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는 꿈만 꾸고 살 수 있는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다음날 그는 예수를 목공소로 데리고 들어가서, 자(尺)로 나무를 재는 법이며, 나무에 똑바로 곧은 줄을 긋는 법, 대패와 다른 연장들을 사용하는 법들을 가르쳤습니다. 이생에서는 일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굶어 죽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아들이 매일 점점 더 창백해져 가고, 심각해져 가는 것을 눈여겨 보았습니다. 그는 말이 없었고, 자꾸만 창백해져 가는 이유를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서만 간직했습니다. 그것은 망치가 나무를 때릴 때마다, 마치 그의 몸에 망치가 떨어지는 것 같이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톱이 나무의 몸 속으로 이빨을 들이밀 때마다 울었습니다. 마루에 엎드려 어깨를 들먹이는 그의 두 눈에서 흘러내린 눈물 방울들이 사람이 쉴 수 있는 침대와 의자가 되기 위해 희생된 톱밥 속으로 흥건이 배어들었습니다. 이처럼 그 자신도 어느 날인가 사람들에게 영원한 휴식을 주기 위해 희생될 것이었습니다. 그는 마음으로 그렇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울었습니다. 그는 나무들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의 죄를 속량할 것이었습

니다. 불의의 제물이 된 나무 위에서, 그분은 희생될 것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작은 가지들은 조용히 참을성 있게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잘려진 가지들인 그대들이 감람나무에 접붙혀지게 하려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무의 시체 위에서 그대들을 위한 밝은 미래를 마련해 주시려고 그대들의 싸움을 대신 싸우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어린 예수는 도제(徒弟)의 임무를 잘 마쳤습니다. 그는 목수가 되는 법을, 울면서 자기의 업무를 수행하는 목수, 하늘로 들어가는 문을 만드는 목수가 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당신이여, 나는 사람들이 보통으로 부르는 이름으로 당신을 부르지 않겠습니다. 나는 성 파프뉴티우스가 이름난 기생 타이스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 후 그녀에게 했던 말을 기억합니다.

"그대의 입술은 창조주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기에 적합치 못합니다. 그대는 늘 '나를 지으신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만 기도하시오"

그녀는 수녀의 독방에서 삼년 동안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삼 년 후에, 어떤 형제가 한 아름다운 영혼이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며 장미로 덮인 침대 위에 누워 있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것이 수도원의 창시자인 대승정 성 안토니오를 위해 하늘 나라에 마련된 곳임이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안토니오는 그가 본 것은 하나님의 이름조차 감히 부르지 못한 겸손한 죄인 타이스를 위해 예비된 곳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당신이시여, 나에게 그렇게 큰 기쁨을 주던 어린이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수호 천사들과 거룩한 아기님도 역시 환상이었습니다. 나는 정말 미쳐버렸습니다.

나는 여러 정신병자 요양소를 다녀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수용된 환자들 중 더러는 행복해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네가 황제라고, 혹은 성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고, 위험에 처해 있고, 고문을 당하고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는 악몽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에게 꼭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은데, 그것도 지나친 욕심일까요? 제발 행복한 미치광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제 주위를 줄지어 맴돌고 있는 어린이들과 그들의 아름다운 수호 천사들을 보게 해주십시오. 언제나 어린아이 예수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허깨비가 아니라 당신이 보여 주시는 환상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 사람들도 나처럼 미친게 아닐런지요? 그러나 그들은 내가 들려 주는 이야기를 기쁘게 들을 것이고, 나는 마음의 위안을 받을 것입니다.

행복한 미치광이, 이것만을 당신에게 부탁드립니다. 아멘.

다시 재갈에 물려

나의 사랑하는 영혼이여.

나는 오늘 다시 그대에게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문에 못이겨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 왔는데. 그런 소리는 나를 비롯하여 어느 누구도 이겨내기 힘든 소리입니다. 두 번째로 고문복에 갇히고, 입은 재갈에 물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누구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씨씨의 성 프랜시스가 만약 내 입장이었다면 어떤 느낌을 가졌었을까 궁금합니다.

나는 어디에 완전한 기쁨이 있느냐고 물어온 레오(사자라는 뜻-옮긴이) 형제와 그분이 나누었던 대화를 기억합니다.

"완전한 기쁨은 여러 가지를 아는 데 있습니까?"

라고 레오가 묻자, 프랜시스는 이것을 부인했습니다. 레오가 다시 물었습니다.

"선지자가 되어 하나님에 관한 모든 신비를 다 아는 데 있습니까?"

프랜시스는 그 형제가 핵심을 찌르지 못했다는 표시로 말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많은 영혼을 구하는 것이 완전한 기쁨이겠군요"

라고 다시 물었으나 여전히 대답은

"아니요"

였습니다.

레오는 한참 생각한 후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기적까지도 일으킬 수 있는 성결함이 완전한 기쁨이겠군요."

그러나 프랜시스가 대답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어떤 것도 완전한 기쁨을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흠뻑 비어 젖고, 굶주린 배로 추위에 벌벌 떨면서, 거지나 부랑아처럼 문지기에게 조롱을 당하며 문 밖으로 쫓겨난 성녀 마리아의 지경에 도달할 때에만 그러한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쏟아지는 비를 진창 속에서 맞으며 수도원 담 밖으로 쫓겨나서 배고픔을 당하면서도, 이런 고통을 기쁨과 인내와 감사로 견디어 낼 때에만 완전한 기쁨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만이 완전한 기쁨의 꽃이 자랄 수 있는 나무입니다."

나에게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뻐하기로 작정하고, 춤을 추었습니다. 나는 정신이 완전한 백지 상태가 될 때까지 뱅글뱅글 돌았습니다. 내가 두 뺨에 눈물을 줄줄 흘리며 침대 위에 나가 넘어졌을 때 나의 온몸은 땀에 젖어 있었고, 문에 있는 감시 구멍으로 이런 모습을 들여다보던 간수들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지금 나는 내 삶을 거꾸로 살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축복에서부터, 그대 나의 영혼이 이 육체의 감옥에서 해방되는 순간을 거쳐, 지금 현재의 내가 처해 있는 상태에 이르기까지, 그러다가 나는 바로 몇 분 전만 해도 팔을 움직일 수 있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내 교회와 내 가족들과 보내던 아름다운 시절을 기억하고는 아주 어린 시절에 이르기까지 내 생애를 거꾸로 기억합니다. 나는 어떻게 해서인지 누군가의 팔에 안겨 있는 어린 아기였던 것까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 나는 어머니 뱃속의 태아로서 수호 천사의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나는 나의 조상들의 허리에 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유대인의 후예라는 특권 때문에 나의 조상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과 테라와 그 밖의 많은 사람들이 나의 조상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죄에 빠지던 아담 속에 있었고, 그 이전에는 하나님과의 친교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영(靈)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나도 그도 없었습니다. 오직 영원전서부터 완전한 평정 속에서 한분만이 계셨습니다.

나의 영혼이여, 어찌하여 그대는 어리석게도 나에게 고문복이 입혀지고 나의 입에 재갈이 물려져 있는 가장 최근의 사태에만 관심을 두는가?

완숙되지 못한 사람들은 언제나 최근의 인상만 가지고 판단을 내립니다. 어떤 사람이 오늘 말 한마디 잘못하면 우리는 여러 해에 걸쳐 그 사람이 해온 많은 훌륭한 일을 다 잊어 버립니다. 과거의 행적으로 도저히 믿을 만한 사람

이 못되는데도 오늘 내게 친절하게 굴면 우리는 그를 믿어 버립니다. 미숙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전에 그 사람에 대해 자기들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참작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오직 최근의 일만이 문제가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런 식으로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예수가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것 뿐이었습니다. 예수가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가르침은 다 잊혀졌습니다. 어떤 사람의 전 인격은 보지 않고, 어떤 특정한 경우에 그가 한 가지 법을 어긴 사실만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겉으로는 회개를 하고, 지금은 전처럼 세속적인 삶을 살지 않고, 교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전과 꼭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에 세상 사람들을 판단하던 식대로 이제는 교회 안의 형제들을 가장 최근에 있었던 사실만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들의 사고 방식은 예전과 꼭 같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이런 표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려움이 닥쳐오면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나의 영혼이여, 그대는 내가 지난 한 시간 동안 고문복에 갇혀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 판단을 내려서는 안됩니다. 삶 전체와 그것의 궤도 전체를 보아야 합니다. 세상에는 무한대(the infinite) 이상의 것, 즉 무한대 너머의 것(the transfinite)이 있습니다. 만약 내가 어떤 지점에서

출발하여 끝이 없는 선을 긋는다면 그것의 가치는 무한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같은 지점에서 출발하여 서로 반대되는 방향으로 두 개의 끝없는 선을 긋는다면, 그것은 무한대를 넘어서는 가치를 갖게 됩니다. 나의 영혼이여, 그대는 영원 이상입니다. 그대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 이르며, 인간으로서의 경험으로 더욱 부요하게 되어 다시 그분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창세기 1:31). 그대가 모든 것을 다 보게 될 때에야 비로소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그림이라도 그것이 완성되기 전에는 보기 흉한 색채의 혼합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조각품도 결정적인 형태를 이루기 전에는 돌덩이에 불과합니다.

나의 영혼이여, 그대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때까지만 기다리십시오. 그때가 되면 이 고문복의 의미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번 재갈에 물리다 보면 나도 재갈에 물리는 것을 좋아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재갈은 인간이 갇혀 있는 언어의 세계를 벗어나게 해줍니다. 목사들은 특히나 말쟁이가 될 위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원래는 주위에 있는 실재하는 것들에게 이름을 붙여 주기 위해 생겨난 말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원래의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발육이 느린 영혼들은 아직도 말에 예전 같은 가치가 있는 줄로 생각하고 말들이 다채로운 내용을 갖고 있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말들을 존중합니다. 그들은 지금에 와서 말이란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다운 인형으

로 보일지라도, 속에는 지푸라기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감독"(bishop)이란 말은 원래 가장 믿음이 독실하고, 환난이 닥쳐올 때에는 양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는 목사 중에서도 우두머리 목사를 의미했습니다. 오늘날의 감독은 약간의 학교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아닌 사람들에 의해서 뽑힌 사람입니다. 내가 체포되기 전에 벌써 우리 나라 정교회의 모든 감독들이, 한 사람만 제외하고는, 모두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일을 옳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개혁파의 감독도 똑같은 짓을 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공산주의자들을 찬양하고 자기들의 양을 저주합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신부, 목사, 랍비, 신자, 믿음, 종교, 예술 따위의 말들이 전혀 다른 의미의 말들이 되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인류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라는 미명하에 우리를 고문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말하기는 더디하라"(야고보서 1:19)고 했는데, 이 말의 뜻은 말하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가 하는 말에 상응하는 실재가 있는지 없는지 생각해 보라는 뜻입니다. 나를 심문하는 사람들의 우두머리는 털게루라는 사람인데, 그 이름은 목수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름 뿐으로, 그는 평생 손에 대패 한 번 잡아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재판한 대제사장 중의 하나가 안나스라는 사람이었는데, 그의 이름은 "동정"이란 뜻이었습니다.

나의 영혼이여, 내게 재갈을 물려 나를 허황된 말에서 해

방시켜 주고, 실재에 대한 성찰을 허용해 준 공산주의자들을 축복하십시오. 이 재갈 물림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돌릴지어다. 아멘.

눈에 보이는 상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지난 며칠 동안 나는 여러분에게 보통 때처럼 설교를 할 수 없었습니다. 육체적 고통이 너무 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도 약간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눈에 보이는 상처 자국이 죽을 때까지, 아니 죽은 뒤에까지 내 몸에 남아 있도록 나를 고문했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몸에 어떻게 상처 자국이 남아 있었을까 하고 늘 이상하게 생각해 왔었습니다. 부활한 몸이 지금의 몸과 같이 보일 수 있을까요? 우리는 류머티즘이나, 불구나, 뒤틀린 사지를 가진 채 부활할까요? 부활한 몸이 그것이 살아 생전에 경험했던 일들의 흔적을 여전히 지니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한 눈과 한 손만 가지고 영생에 들어갈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마태복음 5:29-30).

예수님은 인간의 죄가 아버님 앞에 열거될 때마다, 그 죄

를 지은 사람이 구원받게 하려고 자신이 입은 상처를 내보이기 위해 몸에 상처 자국을 지닌 채 부활하셔야 했습니다. 그분의 이 희생 때문에 나도 구원받은 것입니다. 어쩌면 나의 상처도 도움이 될지 모릅니다. 나를 고문하는 사람들을 위한 나의 기도는 내가 그들에게서 받은 상처를 아버님께 보여드릴 수 있다면 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그들을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고, 내가 그들을 용서할 수 있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의 사랑의 영역 밖으로 몰아내시거나,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어쩌면 내가 언젠가는 이 감옥에서 나가서 서방세계를 방문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나는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도마에게 상처를 보이고 그에게 확신을 심어준 것처럼, 공산주의가 이상(理想)이라는 탈을 쓴 대규모의 범죄 체제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서방의 많은 도마들에게 나의 상처를 보여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고문들 속에는 축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그들이 나를 고문하는 동안 나는 생각을 할 수 없었는데, 꼭 한 마디 말이 내 마음을 딱 한 번 반짝하고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이를 위하여 임명을 받았다"-즉, 환난을 당하라고.

고문은 나의 영혼에 약간의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고문은 하늘 나라에 가고 싶어하는 나의 욕망을 줄어들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고문당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 하늘 나라의 축복 속에 앉아 있는 것이 내게 무슨

기쁨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 아브라함의 품을 떠나고 싶어한 소수의 사람들 가운데 나도 들게 될 것 같습니다(누가복음 16:19-31).

나의 소원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하늘 나라에서처럼 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대로 이 지상을 하늘 나라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의로움과 정의와 사랑으로 가득찬 세상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동물들조차 낙원에서 사는, 사자들이 양들을 잡아먹지 않고 함께 노는 그런 세상을.

나는 나치스의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새들이 인간들에게 동정심을 갖고 있고, 항상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예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옥 마당에는 비둘기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쇠창살이 달린 우리의 창문으로 와서 우리가 주는 빵부스러기를 받아 먹곤 했습니다. 심한 매질이 있으려면 벌써 며칠 전부터 이들이 미친 듯이 날개를 치며 푸드덕거리며, 조심하라는 듯 심하게 울어댄다고 생각한 것은 어떤 한 사람의 상상력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관찰해서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나는 같이 갇혀 있던 농부들과 벽을 통해 암호로 긴 이야기들을 나누었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키우던 개들이 그들의 체포를 미리 알고, 전에 없이 밤새도록 짖어대어도 도무지 말릴 수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내 감방에는 오직 거미 한 마리가 있을 뿐입니다. 나는 놈이 어떻게 해서 이 지하의 감방으로 숨어들어왔는지 모

릅니다. 어느날 보니 놈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놈은 아마 간수가 문을 여는 그 순간을 이용했던 것 같습니다. 놈은 줄을 쳤고, 우리는 곧 친구가 되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먹이를 주고, 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내가 고문을 받기 위해 끌려나가기 전전날 놈이 보통 때와 다르게 괴로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우연의 일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놈이 나와 호흡을 같이 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좀더 큰 관심을 가지고 동물의 세계를 보아야 하며, 우리 자신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원하지 말고-거미에겐 너무 먼 곳이니까-그분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기를-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간단하니까-기원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 죄인들과 사자들과 여우들이 훨씬 쉽게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두고 온 세상은 우리가 애벌레로 살던 곳 같이 보일 것입니다. 오늘의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는 고치(cocoon)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나비들이 되어 이 별에서 저 별로 날아다닐 것입니다-우리의 이 지구를 완전히 떠나지는 않으면서, 야곱의 사다리에 나타난 천사들은 이 지구와 하늘 사이를 오르락 내리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지구와 하나님을 하나로 연결하는 사다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때는 올라가고, 어떤 때는 내려올 것입니다. 이 지상도 하늘 나라와 똑같기 때문에 오르고 내리는 데

아무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때가 되면 그리스도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같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있는 것과 꼭 같을 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늘에 있는 낙원에 가는 것보다 이 지상을 낙원으로 만드는 데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붉은 용과 묵시록에 나오는 다른 모든 짐승들을 패배시키기 위해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들과의 싸움을 의미합니다(요한계시록 12:3).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의와 사랑의 승리를 위하여, 즉 이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승리를 위하여 싸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어떤 원리 원칙을 위해 싸우는 것이 그 원리 원칙에 준하여 사는 것보다 훨씬 쉽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쉬운 길을 택하지 말고, 십자가의 길을 택하십시오. 여러분이 의를 위해 싸우는 동안, 여러분 자신은 의롭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와 그분의 모든 덕성으로 옷입고, 그 다음에 싸우십시오.

감옥에 앉아 있는 것은 나 혼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죄 많은 자신과, 여러분의 잘못되고 제한된 생각의 감옥 속에 갇혀 있는 죄수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로부터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시도록 부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싸울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목적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동안 잠시 쉬었다가 오늘밤 여러분에게 다시 이야기할 수 있어서 참 기쁩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여러분에게 침묵을 지키고 있는 동안에도 고문 때문에 받은 상처의 가치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실낱 같은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혹시나 나를 영웅이라고 생각하거나, 내가 큰 고통을 겪으면서도 휘파람을 불며 너털웃음을 웃었다고는 생각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시기는 우울한 기간이었습니다. 나는 기도도 할 수 없었고, 겨우 몇 초에 불과한 시간 동안 잠깐씩밖에는 하나님께서 같이 계심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고문의 상처는 축복입니다. 우울하던 기간도 역시 축복이었습니다. 영원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나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그분이 가까이 계심을 느끼지 못하는 그때의 하루는 천 년과 같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지금 나를 고문하는 이 공산주의자들처럼 영겁이 지나도록 욕하고, 저주하고, 악한 일만 생각하는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과 같이 지옥에 머문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일 것인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옥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고, 그것을 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만들기 위하여 나를 공산주의자들의 감옥에 들어오게 하셨고, 그 고문들을 당하게 하셨고, 어두운 영혼의 밤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나의 형제들이여, 천국을, 이 지구까지도 포함하는 천국을 건설하기 위해 힘쓰십시오.

옛날에 수도원을 떠나서 나무를 베기 위해 숲을 찾아 갔던 한 수도승에 대한 전설이 있습니다. 숲에 가 보니 낙원에서 온 새 한 마리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동안 새의 아름다운 노래를 듣다가, 빨리 일을 끝내고

수도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수도원의 문지기가 여늬 때의 문지기가 아니었습니다. 문지기는 그가 수도원에 발도 들여놓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가 자기의 이름을 대었지만, 그런 이름은 알지도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수도원장과 면회를 요청했으나, 수도원장이라는 사람은 그가 한 번도 본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한 시간 전에 그 수도원을 떠났던 사람이라고 항의해 보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어떤 사람이 몇 세기 전에 나무를 하러 수도원을 떠났다가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져 버린 한 수도승에 대한 이야기가 그 수도원에 전해 내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냈습니다. 낙원에서 온 새가 들려준 하늘 나라의 노래는 겨우 몇 분 동안 계속된 것 같았지만, 인간 세상 식으로 계산하니까 수세기 동안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 설교를 듣지 못한 날들은 의기저상(意氣沮喪)한 날들이었지만 깊은 의미로 가득찬 나날이기도 했습니다. 그 동안 내가 받은 상처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기쁨의 순간들이 드물게나마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도 낙원의 노래를 들었기 때문에 마침내 나의 의기소침(義氣銷沈)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베토벤과 바하의 음악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만, 내가 지금 이곳에서 들은 노래에 비하면 그들의 음악은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들인지!

형제, 자매들이여. 이 지상을 하늘 나라의 노래로 채우기 위해 싸우십시오. 이 한 노래를 위해 옛날의 모든 노래일랑 버리십시오. "Shiru le-Adonai shir hadash!" -(주께 새 노

래로 노래하라.) 이것은 천사들에게 주어진 명령이었습니다. 그저 듣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도 그들에게서 그 노래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아멘.

빈체아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오늘 나의 설교의 주제는 여러분과 내가 같이 사랑하는 나의 아내 사비나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녀를 빈체아라고 부르지요.

룻과 에스더가 그들을 주제로 한 성서에 포함된 책들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면, 목사의 아내가 그 목사의 설교의 주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법은 없을 것입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에스더가 아하수에로왕에게 귀중한 연인들이었듯, 빈체아는 하나님과 그리고 나에게 귀중한 여인입니다.

나는 이 년만에 처음으로 거울 속에 비친 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죄수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이 수리중이었기 때문에, 간수들이 우리를 자기들이 쓰는 화장실로 데려갔는데, 거기에 거울이 있었습니다.

내 모습을 바라보고 서 있는 나 자신의 입에서 가가대소(呵呵大笑)가 터져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미남이라고 생

각해 주었었는데, 지금의 나는 바싹 마른데다, 못생기고, 두 눈 밑에는 시커먼 원이 생겨 있었습니다. 내 육체의 아름다움에서 남은 것이라곤 그 모습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것보다 더 보기 흉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두개골만 남은 해골이 되겠지요.

나는 감방으로 돌아와서 거울 앞에 선 적이 있었던 옛날 일을 회상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에 대해 종종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나는 우리의 어디에 하나님을 닮은 점이 있는지를 궁금하게 여기곤 했지만 만족스런 해답을 얻지 못했었습니다. 어느날 나는 다시 거울 앞에 서서, "내 모습의 어디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단 말인가?"라는 질문을 자신에게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마음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직감적으로 잘 아는 내 아내가 조용히 내 옆에 와 섰습니다. 그러자 나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모습대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창세기 1:27).

남녀의 두 성(性)이 하나되는 곳에 우리의 하나님다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도 영원한 존재들을 창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도 역시 영적인 영역에서 반대 성(性)의 배우자를 갖는데, 여자는 애니머스(animus), 남자는 애니마(anima)를 갖습니다. 이것은 정신분석학자 융(Jung)이 붙인 이름으로 이상적인 사랑(ideal love)이란 뜻이며, 그들이 결코 만난 적이 없었으며, 결코 결합할 수 없었던 배우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삶이란 무한한 것이며, 그들은 결합하게 될 것입니다.

빈체아는 나와 결합함으로써 나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을 닮게 한 여인입니다. 나는 그녀보다 먼저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 내가 오늘까지 예수를 믿는 것은 오로지 그녀의 덕택입니다.

나는 나치스 시절에 그녀와 같이 한 감옥에 갇혔던 일을 기억하는데, 그때 우리는 매일 복도에서 만나 같이 산보도 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은 내가 체포되자 그녀가 자기도 나와 같이 감옥에 보내달라고 요청했던 일도 기억합니다.

그후 공산당이 정권을 잡게 되었을 때, 공산당의 꼭두각시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내게는 퍽 친절하게 대해 준 정교회의 한 성직자가 나를 체포하기로 결정이 내려졌다는 정보를 내게 몰래 알려 주었습니다. 나에게 도망갈 기회가 주어진 셈이었는데, 도망을 가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 내가 아내의 의견을 물었을 때, 아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도망친다면,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목자가 아닌 삯꾼은 양들이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가까이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도망쳐 버린다'라는 구절을 읽고 어떻게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래도 여전히 도망치고 싶은 유혹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어떤 목사가 나를 찾아 왔는데, 그의 개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용하신 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알콜중독자였는데, 그는 술이 잔뜩 취해서 집에 가기를 거부하며 길거리에서 추태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그

래서 나는 이 술집에서 저 술집으로 그를 따라 옮겨다니며,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 다음날 그가 깨어났을 때,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이제 찾아와서 옛날 일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그는 되풀이해서, "그때 목사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 중에서 제일 인상깊었던 것은, '살려거든 어서 달아나거라. 뒤를 돌아다 보아서는 안 된다'(창세기 19:17)는 말씀이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떠나고 나서 나는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그가 자꾸만 되풀이하던 성경 말씀이 혹 내가 도망해서 내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었을까?"

아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당신은 생명을 구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누구든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구하는 자는 생명을 잃을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생명을 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머물기로 결정을 했고, 지금도 그 결정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공산당 경찰에 의해 거리에서 납치되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나를 집에서 체포했더라면, 나는 내가 자주 아내에게 못되게 굴었던 것에 대해 그녀에게 용서를 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요즈음 때때로 "예수님, 저를 도와 주세요"라고 말하는 대신 "빈체아, 나를 도와줘요"라는 말을 하고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많이 닮았습니다. 사도 바울을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호소를 하거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호소를 하거

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고침을 받았습니다. 언젠가는 크리스찬들이 모두 그리스도와 같아질 것입니다. 크리스찬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구주님과 이야기하는 것과 꼭 같을 것입니다. 그러니 "빈체아, 나 좀 도와 줘요"라고 말하는 것이 과히 틀린 일이 아닐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녀가 내 가까이에 있다면, 내 말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좁은 감방 안에서 나는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가까운 것도 먼 것도 없으니, 내가 그녀에게 도움을 호소해서 안 될 일도 없습니다. 모든 세대에 걸쳐 모든 선한 사람들은 서로에게 아주 가깝기 때문에 서로를 도울 수 있습니다. 초기 교회의 성도들이 큰 고난을 당할 때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성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관습이 생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그후 그 관습 중에 귀중한 면이 보존되어 오는 것도 있고 해롭게 변한 것도 있습니다.

빈체아는 위험을 피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는 여자였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우리 나라 국회의사당에서 열었던 종교회의(Congress of Cults:1945년 루마니아의 국회의사당에서 가진 4,000여 명의 성직자 대표들의 모임-역자주)에서 공개적으로 그들의 주장에 반대하는 말을 하라고 나를 부추기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캄보디아의 속담을 인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두 마리의 코끼리가 싸울 때는 개미는 옆으로 비켜서야 한다."

그녀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캄보디아 사람이 아니라 루마니아 사람이예요. 우리 나라엔 우리 나라 나름의 격언이 있지요. '조그마한 막대기가 큰 마차를 넘어뜨릴 수 있다'라는."

그녀는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어쩌면 내 가까이에 있는 어느 감방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어떤 여자가 고함지르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소리가 바로 아내의 소리라고 맹세할 수도 있었습니다. 내가 그녀를 마지막으로 본 것은 영적인 만남이었는데, 그녀는 몹시 고문을 당한 듯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녀를 그리며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요한일서 1:7)라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가 어디 있습니까? 그분의 피가 나의 죄를 씻을 수 있도록 어디서 그분의 피를 찾을 수 있습니까? 영화롭게 되신 예수님의 몸에는 피가 없습니까? 주님은 유대인들의 표준적인 "몸과 피"(flesh and blood)라는 표현 대신에 "몸과 뼈"(flesh and bones)라는 말을 쓰셨습니다. 그분이 극심한 매맞음과 가시면류관과 십자가 때문에 흘리신 피는 죽은 모든 사람들의 피와 마찬가지로 수 세기가 지나는 동안 수천 번에 달한 자연 현상의 변화로 지금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죄에서 구해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피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피에 관한 어떤 신부들이나 목사들의 가르침 속에 나타난 피는 영화 촬영소에서 폭력의 장면을 찍을 때 배우의 얼굴에 칠하는 화공약품으로 만든 가짜 피에 더 가까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천 년 전에 살았던 한 역사적 인간을 가리킬 수도 있고, 영화롭게 되신 예수님이 그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 지체를 이루는 신비로운 몸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에베소서 1:23). 이 후자의 그리스도는 끊임없이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역사상 이 신비스러운 몸의 한 지체라도 피를 흘리지 않는 날은 하루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피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들 몸의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에게 속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들의 육체로 채웁니다(골로새서 1:24).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제사를 영원히 이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바로 그분의 피입니다.

우리는 일어나는 사건에 잘못된 시간 개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차를 타고 갈 때, 우리는 마을과 도시들이 우리를 지나가고 있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우리는 한 정거장이 지나갔고 다음 정거장이 지나가려 한다고 말합니다. 실은 모든 정거장들이 동시에 그 자리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 감각의 망상입니다. 그래서 시간의 제약을 받는 우리의 정신이 어떤 역사적인 사건은 과거에 속하는 것으로, 어떤 역사적인 사건은 미래에 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실은 오직 영원한 '현재'만이 존재하는 것이며, 그 현재 속에서는 갈보리 산상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이천 년 전과 마찬가지로 오늘에도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전부터 그후 모든 세대에 걸쳐 흘린 순교자들의 피도 영원한 현재에 속합니다.

이 광대 무변한 영원한 현재 속에는 내가 나의 빈체아를 다시 만나고, 당신들이 당신들의 사랑하는 이들을 영원한 기쁨 속에서 만날 한 시절이 있는 것입니다. 잘 자요, 빈체아.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형제, 자매들이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아내와 남편들을 사랑합시다.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마태복음 5:12). 소금은 염화나트륨입니다. 소금의 분자는 그 원자 중 하나를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더 이상 소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맛을 잃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원자와의 결합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열려 있으면 다시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를 '소금 되게' 만드는 교훈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영원히 멸망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장 훌륭한 교사들은 감옥에 앉아 있고, 공산주의와 타협한 믿을 수 없는 교사들만이 여러분 곁에 남아 있는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소금을 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아내이거나 남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같이 살고 있는 동안 이 가능성을 활용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책 번호/517번

독방에서의 설교

지은이/리차드 범브란트
옮긴이/전덕애
발행인/장하구
발행처/종로서적출판주식회사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관철동 45-1
우편 번호/110-111
대표 전화/732-5381, 732-2331
FAX/732-6202

출판 등록/1954년 1월 7일 제1-360호
초판 인쇄일/1996년 12월 20일
초판1쇄일/1996년 12월 20일

ISBN 89-305-0517-1-03800

책값 4,000원

옮긴이와의 계약에 따라 검인을 폐지함.